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2021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김 소 연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원 효 헌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전공

김 소 연

김소연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27일



주심 교육학박사 허 균 (인)

위원 교육학박사 조 진 호 (인)

위원 교육학박사 원 효 현 (인)

국문 요지

본 연구는 유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발달의 속도가 빠르고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때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를 알아보고, 이 두 요소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위해 부산 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7세 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인 초기발달을 유도하여 건강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머니의 인성 특성의 측정을 위해 하위요인은 외향성과 신경증성을 측정하였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측정을 위해 하위요인으로 애정적 태도 그리고 자율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 그리고 통제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맨 끝으로 유아들의 친 사회적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 나누기와 도움 주기 그리고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와 지도 성을 측정하였고 영향력을 검증했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특성(어머니의 나이, 학력, 취업 형태, 자녀 나이, 자녀 성별)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도구의(어머니의 인성 특성, 양육 태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고, 각 독립 변수(어머니의 인성 특성, 양육 태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간의 다 중공선 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인성 특성, 양육 태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시행했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아보다는 여아가, 그리고 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자율적 태도로 양육할 때,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 특성이 발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별이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그리고 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가 자율적 태도로 양육할 때,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도움 주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유아의 성별이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그리고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외향적일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자율적일 때,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 자율적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지도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종합하여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 표현은 유아의 긍정적인 친 사회적 행동에,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은 유아의 부정적인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어머니라는 대상을 통해 제공되는 양육환경이 어머니의 인성과 양육 태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어머니가 질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동시에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을 돕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정서 표현은 결국 어머니의 인성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므로, 어머니의 신경증성 같은 부정적 인성 특성을 감소시키는 인성 발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에 따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다양한 어머니 교육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양육 태도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여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The Influence of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Attitudes on Infants' Pro-Social Behaviors**

So Youn Kim

Education consulting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infancy is an important period in which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is formed, and the rate of development is rapid and the most sensitiv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attitude of the mother, who is the primary caregiver, on the children during this peri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attitude of mothers, who are the main caregivers, were investigated, and the effect of these two factors on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was investigated. For the study, mothers with children aged 3 to 7 who were living in a daycare center in Busan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o prepare basic data for healthy growth by inducing positive early development of infants. want to use it for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e sub-factors were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to measure the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o measure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 affectionate attitude, autonomous attitude, rejection attitude, and controlling attitude were measured as sub-factors as sub-factors. measured. Lastly, the sub-factors for measuring the pro-social behavior of infants were divided, helping, empathy, control, and leadership, and their influence was verified.

First, descriptive statistics were analyz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other's age, educational background, employment type, child's age, child's gender), and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Next, the cronbach's α coefficient, which is the degree of intra-item agreement, was selected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tool (mother's personality traits, parenting attitude, and infant's prosocial behavior), and each independent variable (mother's personality trait, parenting attitude, infant's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multicollinearity between pro-social behaviors). Next, t-test and ANOVA analysi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arenting attitude, and infant's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Finally, the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were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out how attitudes affect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sharing characteristics develop among infants' pro-social behaviors when girls and infants are older than boys, and when mothers raise them with an autonomous attitude. When the gender of the child was a girl rather than a boy, the older the child, the more autonomous the mother

raised, and the development of helping amo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as affected. When a child's gender is a girl rather than a boy, and when the mother's personality traits are more extroverted, and when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 is autonomous, it affects the development of empathy and regulation among infants' prosocial behavior, and finally It was found that among mothers' parenting attitudes, autonomous attitudes affect leadership among infants' pro-social behaviors.

Comb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affects infant's positive prosocial behavior, and mother's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affects infant's negative prosocial behavio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enting environment provided through the subject of a mother experienced early in life is absolutely affected by the mother's personality and parenting attitude,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a mother to provide a quality parenting environment for the holistic development of infants. it means it's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and at the same time emphasizes that the educational program needs to contain content tha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helping mothers to express their positive emotions. sugges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that mothers show to infants is ultimately affected by the mother's personality traits. Therefore,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 that reduces negative personality traits such as maternal neuroticism? Big. In the sense that the pro-social behavior patterns of infants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ot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attitude, the foundation of a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educating various mothers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on parenting attitudes for the desired growth and positive development of infants is established. It should be

prepared and actively applied to parent education.



목 차

Abstract	vi
표 목차	ii
그림 목차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8
1. 어머니의 인성 특성	8
2. 어머니의 양육 태도	14
3.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26
4. 어머니의 인성 특성, 양육 태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선행연구 고찰 ..	31
III. 연구 방법	43
1. 연구대상	43
2. 측정 도구	44
3. 자료 분석연구 절차	49
4. 연구 절차	50
IV. 연구 결과	51

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51
2. 집단별 차이 분석	53
3. 상관관계 분석	62
4.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65
V. 결론 및 제언	73
1. 결론	73
2. 제언	76
참 고 문 헌	78
부록(설문지)	92



표 목 차

<표 II-1>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10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43
<표 III-2> 어머니 인성 특성 질문지 문항 수와 신뢰도	46
<표 III-3> 양육 태도 검사의 구성	47
<표 III-4> 친 사회적 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및 신뢰도	48
<표 III-5 > 연구 절차	50
<표 IV-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52
<표 IV-2> 어머니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54
<표 IV-3> 최종 학력에 따른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56
<표 IV-4> 취업 형태에 따른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58
<표 IV-5> 자녀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60
<표 IV-6> 자녀 성별에 따른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61
<표 IV-7> 변인 간 상관관계	64
<표 IV-8>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나누기에 미치는 영향	66
<표 IV-9>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도움 주기에 미치는 영향	68
<표 IV-10>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에 미 치는 영향	70
<표 IV-11>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지도 성에 미치는 영향	72

그림 목 차

[그림 Ⅱ-1] Schaefer (1959)의 양육 태도	21
[그림 Ⅲ-1] 인성 특성 평정 척도의 하위요인	4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에게 어머니란 유아가 세상에 태어나 생애 최초로 형성하는 애착의 주요 대상이다. 유아는 주 양육자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나간다는 점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환경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임선자·선우현, 2015).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은 생애 초기에 유아가 경험하는 적절한 자극과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 유아가 경험하는 좋고 나쁜 정동들은 사회 정서 발달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이병욱, 2005). 이렇듯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은 또래 놀이에서의 감정표현, 기관에서의 적응, 부모와 다른 성인과의 애착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이화용, 2012).

Heinicke (1983)에 의하면 바람직한 인성 특성을 가진 어머니는 아동을 양육하면서 더 반응 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보인다. 외향성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덜 엄격하며 온정적이고, 민감하면서 반응 적인 긍정적 양육 행동을 보였다(Belsky, 1984). 반면, 어머니의 신경증적 성향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있어서 낮은 온정성과 반응성과 관계가 있었으며(Clark et al, 2000), 외향성이 높고, 신경증이 낮을수록 유아는 정서를 잘 통제한다는 연구(문혁준, 2010; 박혜성, 2010; 황영미, 2009)결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유아들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인성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에 의해 유아는 사회성은 형성한다. Belsky(1984)는 특히 어머니의 인성 특성에 대해 주목하면서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인성 특성에 영향을 받은 양육 행동은 다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유아에게 있어 생애 최초의 애착 대상인 어머니가 보유한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에 기반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아는 이 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한다(성은교 외, 2018). 유아들은 자기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인 부모를 모델로 인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따라서 유아는 사

회적 행동 양식을 부모에게서 배우고, 유아기는 사회적 적응 행동을 비롯한 인간의 사회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발달시켜 나가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Maccoby & Martin, 1983). Erikson(1968)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유아기에 어머니와의 형성된 신뢰감이 이후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감 형성의 기반이 되고, 이러한 시기에 신뢰감이 형성하지 못한다면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은 큰 장애가 발생 된다고 하였다.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 유아의 정서 능력은 또래 관계에서의 경쟁과 협동 속에서 정교화된다(우수경, 2002). 특히 유아들은 부모들과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통하여 유아들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해가며, 적응하고 정서를 이해하며,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성장한다. 유아기에는 부모인 주 양육자들에게 정서적인 유대감과 신뢰감 즉, 애착 형성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모들은 유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 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정서적 안정 기반을 통하여 유아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들을 확장 시켜나갈 수 있게 되며 유아들을 직접 양육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일차적 환경인 주 양육자인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강조되어야 할 정서발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녀의 정서 반응을 공감하며, 높은 양육 민감성을 통해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정서에 대한 신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조은꽃, 2014).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의 형성되는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인 기대, 유아가 또래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다른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느낌을 유지하고 개발시킴으로써, 미성숙한 상태에서 사회화되도록 도와준다(이은혜, 2006). 이러한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요소인 친 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으로,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말한다(Bar-Tal, 1976; 홍혜란, 2008). 그러나 친 사회적 행동들은 개념적 정의가 명확히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친 사회적 행동을 지켜보는 연구자의 시각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부모 양육 태도 및 양육신념과 친 사회적 행동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 때 유아는 친 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조은하, 2013), 유아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이나 사회의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전현숙, 2001).

인성이란 단어는 사전적으로 첫째, 인간 고유의 성질, 둘째, 각 개인의 특성이다. 즉, 인간으로서 응당 갖춰야 할 품성의 기준이며 개인의 고유하고 변화하는 정체성을 말한다. 인성 특성은 신경증성(neuroticism)과 외향성(extraversion),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된다. (전현진, 1997; Eysenck & Eysenck, 1976). 신경증성은 부정적인 정서에 해당하는 특성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 어머니들의 흥분감, 우울감, 적대감, 정서적으로 불안정, 충동적이고, 심리적으로 부적응인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외향성은 긍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특성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 어머니는 대인관계에서 온정적이고 사교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의 특성을 나타낸다(전현진, 1997; Eysenck & Eysenck, 1976). 인성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신경증성(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이 인성 특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5요인으로 구분된다(Costa & McCrae, 1980).

인성은 한 개인의 성품이며, 개인의 성품은 품격과 성질이다. (남궁달화, 1999). 품격은 사람 됨됨이의 바탕이 되고 성질은 마음 바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다. 곧 인성은 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의 바탕이며 마음 바탕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정의했다. 모든 가정 내에서 행하여지는 어머니가 하는 정서 표현을 양육 태도라고 생각할 때, 신경증보다 외향성이 훨씬 높은 어머니일수록 애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고(전현진·박성연, 1998), 외향성보다 신경증성이 훨씬 높은 어머니일수록 과잉보호할 가능성이 크고 간섭이 많으며, 강압적이고 통제적 양육 태도를 보여주는 선행연구(김나희, 2010; Belaky, 1994)에서 보면 어머니의 외향성이 긍정적인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신경증이 부정적인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인성 특성 요인들 가운데 보이는 신경증과 외향성, 긍정적인 정서성이나 신경증성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인성 특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외향성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라는 것은 따뜻한 인간관이나 사회성, 그리고 활동성과 또는 애착, 흥미로움을 얻으려는 행동,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신경증성은 부정적인 정서 표현으로 불안하며, 우울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적대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동적이며 불안정하고, 이에 자존감 또한 낮은 성향을 보인다(Belsky, 1994). 인성 특성은 한 인간 개개인의 정서,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필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선행요인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김연옥·김영희, 2002; Hughes & Gullone, 2010)

Benn(1985)은 어머니의 민감성과 수용성 같은 특성은 어머니의 통합성이 외부로 표현된 것이므로 유아의 발달이 어머니의 기본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같은 특성은 유아의 발달과 상관이 있다. 그리고 유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회적·외향적 인성 특성에서도 아주 상위의 점수를 받은 유아의 어머니가 유아를 양육하면서 훨씬 반응 적이며, 긍정적 감정을 지닌다. 어머니들의 과 보호 양육 행동들은 자녀들을 아기같이 대하는 아기 취급 행동과 더불어 보호적 행동의 두 가지 요인들을 포함한다. 아기같이 취급하는 행동은 유아들이 나이에 맞게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과하게 많이 도와주는 행동들 또한 유아들의 독립성을 방해하고 있는 행동 특성 유형이고, 보호적인 행동은 유아들의 주변 환경에 관해 과하게 걱정하며 염려하는 행동 특성 유형이다(Doh, Falbo,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 특성은 양육 행동 중에서 부정적 차원의 통제 성에 해당하는 양육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들은 유아들에게 통제적이고 덜 애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유아들에게 지시적으로 관여하며, 자녀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며, 자녀들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엄한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천희영, 1992).

양육 태도는 부모 그리고 주 양육자가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일반적 그리고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동의 유형을 의미한다. 양육 태도의 의미는 주 양육자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난 태도와 행동이며, 유아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 발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이원영, 1983). 본 연구에서의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에는 애정적 양육 태도와 자율적 양육 태도와 거부적 양육 태

도, 통제적 양육 태도로 구분했다. 유아들의 사회적 행동, 정서적 행동의 특성들은 부모 그리고 주 양육자가 어떤 태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허용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에게서 성장한 유아는 능동적이며 외향적이고 독립적이고 사회 적응도 자신감 있게 하며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과 더불어 타인에게 대한 적대감이 없다고 하였다(김선미, 2015) 반면, 신경증적이고 통제적인 부모들의 양육 태도는 유아들의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인 유아기에 들어 친 사회적인 행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또래들에게 수용되거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부적응은 미래의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계속된다. 결론적으로 유아기에 대인에 관한 관계 형성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면 미래의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에서의 고립과 낮은 학업 성취율,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 성까지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사회의 적응을 위한 친 사회적 행동 발달의 중요성이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의한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보면 유아들의 초기의 발달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인성과 태도 그리고 가치와 행동 등을 내면화를 통하여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따르게 됨과 동시에 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타인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타인의 입장으로 즉, 객관화하여 보게 되면서부터 형성되었다고 했고 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됨으로써 친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에 따라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 발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유아의 긍정적인 초기발달을 유도하여 건강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의 유아가 바른 인성과 긍정적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의 양육 속에서 성장하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유아 및 어머니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양육 태도의 차이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인성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태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어머니의 인성 특성

인성이란 한 사람의 특징인 사고와 행동과 감정을 결정할 수 있는 생리적이고 심리적 체계이며, 개인의 마음에 존재하는 역동적 구조로 옳고 참다운 덕목을 체질화시켜 자기의 인격 내부에 융합시킨 결과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하위요인인 외향성과 신경증성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노경아, 2016).

나. 양육 태도

양육 태도란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으로,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 영역 발달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이원영, 1983).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하위요인인 애정적, 자율적, 거부적, 통제적 태도로 구분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정경희, 2017).

다. 친 사회적 행동

친 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고 하는 모든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써 행해진 이타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도움으로서 이익을 노린 계산적인 도움 주기 행동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은 하위요인인 나누기, 도움 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 성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조은하, 2013).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인성 특성

가. 인성의 이해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지만, 모두가 인간다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람의 됨됨이를 갖추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 즉,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된다(남궁달화, 2001). 인성을 나타내는 말은 개성(individuality), 기질(temperament), 인격(personality), 인품, 사람됨 등등의 많은 표현으로 설명된다. 인성 검사, 인성개발, 인성 심리학이라고 쓸 때 인성은 ‘personality’의 뜻이고 솔직한 사람,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쓸 때는 ‘인간성’의 줄임말로 ‘인성’을 쓰며 이는 ‘nature of human’의 뜻이 된다(손금순, 2002).

인성이란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개인의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하며, 정서, 태도, 관념, 습관, 신체적 특징 등 많은 요소를 포함한다(안윤경, 2003). Sullivan(1984)은 인성을 다양한 과정의 역동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인간 특성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인성을 다양한 인간 환경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달하는 특성이라고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개인의 적응력과 감성 능력 그리고 사회 규칙에 대한 이해와 순응력, 도덕성 등으로 인성을 정의하였다(우종욱, 2001). 이와 유사하게 이연숙(2001)은 인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공동체 의식이 매우 발달한 사회적 성숙함이나 사회적인 기술이라고 하였다.

정신분석학자인 Abram Kardiner(1939)는 문화와 인성 간의 정신 역학적 분석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나타냈다. Kardiner의 접근방식의 독특한 측면은 그는 사회제도들은 인성에 무슨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인성은 제도들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밝혀내려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성질로 볼 수 있으나, 학문적으로 인성의

개념은 다채로운 의미로 사용된다. 인성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인간의 본성으로 쓰이기도 하고, 성격 혹은 인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지(知)·정(情)·의(意)를 골고루 갖춘 전인(Whole Person)적인 특성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인문주의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적 제도들과 인성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화된 정신분석학적 추론과 문화 결정론적 입장의 인류학적 자료들에 기초하면 Kardiner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다. 첫째, ‘일차적 제도’라고 불리는 어떠한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자녀 양육 양식은 부모에 대하여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태도는 개개인의 전 인생을 통하여 작용한다. 둘째, 어떠한 사회의 문화적으로 표준화된 자녀에 대한 양육 방식에 의하여 형성됐고, 더구나 어른들 사이에도 존속하고 있는 태도들과 행위가 하나의 잘 통합된 유형을 이룰 때, 그것을 사회 전체의 ‘기본적 인성’이라고 한다. 셋째, 일차적인 제도로부터 파생된 이러한 기본적인 인성들은 투사(投射)의 메커니즘에 의해 종교, 정부, 신화 등등과 같은 다른 제도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투사의 결과로 생긴 이러한 제도는 ‘이차적 제도’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초기에 생겨나는 일이지만, 일단 기본적 인성이 형성되면 이것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답습을 통하여 어른들은 부모들이 그들을 다루었던 것과 같이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인 인성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문화로부터 새로운 요소를 취하게 된다. 그들이 새로 발생한 문화를 접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앞서 친숙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빌어온 요소를 변형시킬 때는 그것을 제공한 집단들의 어떠한 정서적인 욕구들보다는 자신들의 것들에 맞추어 변형시키며 이런 기본적인 인성의 결정적 변화에는 일차적 제도를 바꾸기에 충분할 만한 근본적 문화변동을 요하고 있다.

Kardiner는 다음과 같이 문화에서의 한 측면이 어떤 인성 형성에 작용하며, 그에 따른 결과로 형성된 인성은 문화의 또 다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려 시도했다. 이런 시도에 그는 인성을 내적 동기와 욕구와 이것들의 표현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내외적 통제 간의

화해로 보았으며, 이것은 이를 개인과 그들의 환경 사이에 안정적이며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성은 개인의 일생을 유지하려는 방법을 특색 지우는 일련의 습관이라 봤다.

Kardiner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먼저 인성의 개념은 심리학자들이 행동을 관찰, 측정하려는 방법에 동의하기 위한 허용한 용어이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기능 속성이며 개인에게 독특한 속성의 나타냄이다. 인성은 더더욱 안정적이며 변화치 않는 측면의 개인 기능(구조)과 더더욱 유동적이며 변화하는 측면(과정) 둘 다를 포함된다. 인성은 개개인의 인지, 정서, 외현적 행동 과정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단히 관여된다.

인성 특성은 한 개인의 정서,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연옥·김영희, 2002; Hughes & Gullone, 2010). 정서 표현 역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으로 개인마다 반응의 정도와 표현양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심리적인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특히, 외향성은 높은 긍정적 정서와 상관이 있었으며, 신경증성은 높은 부정적 정서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Larsen & Ketelaar, 1991)를 통하여 외향성과 신경증성이 정서 표현의 선행요인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신경증적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lsky et al, 1995; Smith, 2007) Kardiner를 비롯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한 인성의 정의는 다음의 <표 II-1>에 제시하였다.

<표 II-1>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학자	인성의 정의
현주 외(2009)	더 긍정적이며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심리적이며 행동적 특성
조연순(2008)	자기의 내면적 요구 그리고 사회 환경적 필요를 슬기롭게 조화시킴으로써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인간의 특성
남궁달화(1999)	사람의 성품이며, 성품은 성질과 품격. 성질은 마음의 바탕

	이며 사람됨의 바탕을 나타내는 말
이윤옥(1998)	타인에게 주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이며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드의 가치개념의 의미를 내포함
한국교육학회 (1998)	인간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됨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개념,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
이근철(1996)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및 정서(감정) 등을 의미를 나타내고 넓게는 지, 덕, 체 또는 지, 정, 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 인성
황응연(1992)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나타내는 행동과 태도, 동기, 경향성, 인생 과정들의 총합이며 사람에게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독특한 구조임. 인성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 포함
조난심(2004)	인성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을 지칭하는 것
미래교육부 (2007, 2008)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 신뢰, 시민성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자질은 물론 이러한 자질들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출처: 천세영 외 (2012) 재구성

나. 어머니의 인성과 자녀의 발달

Benn(1985)은 어머니의 민감성, 수용성과 같은 특성은 어머니의 통합성이 표면으로 표현된 것임으로 유아들의 발달은 어머니의 기본적 인성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특성은 유아들의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회적·외향적 인성 특성에서 긍정적 점수를 받은 어머니는 양육에서도 더 반응 적이며, 긍정적 감정을 지닌다. (Heinicke, Diskin, Ramsey-Klee & Given, 1983). 여러 인성 특성 요인 중에 신경증과 외향성(Eysenck & Eysenck, 1967)이나 긍정적 정서성과 신경증성(Watson & Clark, 1984; Watson & Tellega, 1985)은 대표적으로 연구돼온 인성 특성 유형이다. 외향성과 긍정적인 정서는 따뜻한 인간관계와 사회성과 활동성 그리고 애착 및 흥미로움을 추구하는 행동 등등을 가리키는 말들이다.

그에 반해 신경증적이 부정적인 정서는 불안하고 우울하며 자의식이 강하고 적대적이며 정서적으로도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자존감이 낮은 성향을 나타낸다(Belsky & Vondra, 1993). 인성 특성은 한 개인의 정서,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연옥·김영희, 2002; Hughes & Gullone, 2010). 어머니의 긍정적 특성인 외향성과 긍정적 정서 표현은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 조절 능력에 어머니의 부정적 특성인 신경증성과 부정적 정서 표현은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 조절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 표현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발달에 어머니의 정서 표현이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박혜성, 2011). 어머니의 신경증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훨씬 많이 표현하고 긍정적인 정서는 적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 대화나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도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다(Belsky et al, 1995; Hughes & Gullone, 2010; Smith, 2007). 즉 어머니의

외향성은 높은 긍정적인 정서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외향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긍정적 정서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화령·임남연·류초롱·서은국·박수진, 2008; Fleeson, Malannos & Acille, 2002).

어머니의 성격의 중요성을 조사한 다수의 연구(반현주, 1985; 양순봉, 2002; 이태임, 2001; Jose, 1991)에서 어머니들의 성격유형이 외향적일 경우는 유아 역시 외향적인 행동 발달이 이루어짐을 밝혀냈다. 유아들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가운데 특히 어머니들의 성격은 자녀들의 사회적인 적응 행동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김형욱, 2001).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특성인 외향성과 긍정적인 정서 표현에 있어서 유아들의 긍정적 정서 조절 능력에, 어머니의 부정적인 특성인 신경증성과 부정적 정서 표현은 유아들의 부정적 정서 조절 능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어머니들의 인성 특성과 유아들의 정서 조절 능력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머니의 정서 표현의 매개적 역할이 발견됨으로써, 유아들의 정서 조절 능력 발달에 어머니들의 정서 표현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박혜성, 2011). 어머니들의 우울 증세와 우울증 장애는 부모의 양육과 관련이 매우 크므로 양육 태도의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상호작용(Bettes, 1988; Cohn, Matias, Tronick, Connell & Lyons-Ruth, 1986)과 더불어 우울증을 보이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질을 측정된 연구 결과를 보면,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몰입되어 있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과하게 몰입하여 아동의 요구에 하나하나 따뜻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저하한다(Colletta, 1883; Crnic & Grrenberg, 1985; Tronick & Field, 1986).

2. 어머니의 양육 태도

가. 양육 태도의 개념 및 유형

1) 양육 태도의 개념

유아들은 부모들과 최초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부모들과의 관계는 유아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부모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모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모들의 가치관과 생활 규범들을 습득하게 되며, 점차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며 자라게 된다. 부모들은 유아들의 성장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양육환경이고 부모들의 양육 태도는 유아들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김경진, 2014; 이진희, 2011).

양육(parenting)이라는 것은 유아들의 생존과 발달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게 자라게 하고 보살피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것은 ‘낳는다’, ‘생산하다’, ‘발육시키다’, ‘교육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parere’에서 유래했다(Hoghughi, 2004; 서수진, 2011 재인용). 양육 태도의 의미는 주 양육자가 아동들에 대해서 행하는 일반적 태도와 행동들, 즉 유아기 때의 훈련과 생활 훈련 그리고 전반적 유아들의 행위들에 대하여 행하는 부모들의 태도를 뜻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양육 태도라는 것은 주 양육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하는 일반적 태도와 행동이며(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8), 양육 방식에 있어 아동들의 나이나 연구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진다(정경희, 2017). Baumrind에 따르면, 양육 태도는 권위적 (authoritative) 양육 태도, 그리고 독재적(authoritarian) 양육 태도, 허용적 (permissive) 양육 태도 세 가지로 정의된다. 이것은 개인적 양육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Winsler et al. 2005). 이런 양육 태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양육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양육자들의 수용과 반응의 태도, 즉 사랑과 애정

(warmth)을 말한다.

이차원에서는 부모가 유아들을 얼마나 수용적이며, 반응 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양육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요구와 통제(control)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즉 부모가 유아들의 행동에 얼마만큼의 규칙을 확고히 정하고 훈육의 기준을 요구하는가에 있다. 다음처럼 애정과 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각각 총 네 가지 양육 유형을 제안하였다(Rinaldia & Howeb, 2012). 첫째는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 태도인데 이 유형은 높은 애정과 반응을 가짐과 함께 높은 규제와 통제 수준을 보이는 유형이다. 둘째는 허용적(permissive) 양육 태도인데 이 유형은 유아에게 애정적이며 수용적이고 온건적 태도를 보이나 매우 낮은 수준의 요구와 통제를 보이는 유형이다. 셋째는 독재적(authoritarian) 양육 태도인데 이 유형은 통제적 수준은 높으나 낮은 수준의 애정과 반응을 보인다. 높은 수준의 통제를 보이는 권위적인 양육 형태와 흡사하나, 애정이 부족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넷째는 방임적(uninvolved) 양육 태도인데 이 유형은 유아에게 허용적 태도를 가지나 반응 적이지 않고 자녀 행동에 대한 요구나 기준이 없는 양육 형태이다. 이처럼 네 가지의 양육 태도가 제시되지만 대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권위적, 허용적, 독재적 양육 태도 3가지 유형의 양육 태도가 사용된다(Baumrind et al., 2010).

영유아기의 경험들은 아동들이 성장한 이후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이원영, 1983 재인용). 영유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부모와 형제와 가정 그리고 또래와 교육·보육 기관 등등으로, 아동들의 나이별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들이 다르지만, 영유아기 동안 아동들의 발달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 특히나 어머니의 양육 태도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 특성을 규정하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아동들의 발달 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이 지속하고 있다(박경자, 2001). 어머니들은 영유아들과 매우 많은 접촉을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들 나름의 지적이며 정의적인 특성들을 심어줌으로써 영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있어 어머니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과 영향력은 아주 큰 것이다. 그래

서 유아가 혼자 의도적이거나 또는 계획적으로 환경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들에게는 부모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양육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오세연, 1993).

자녀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싶은가, 자녀들의 양육에서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들의 역할은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는지와 같은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신념은 추상적인 개념 체계이다. 즉, 부모들의 양육신념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며, 자녀들의 발달을 위해서 양육 태도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그 결과 자녀들의 발달에 또 다른 영향을 준다(Godnow, 1988).



2) 양육 태도의 유형

양육 태도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고(장영숙, 2009; 최정혜, 2015; 이유진, 2016; 박현진 외, 2019), 각 양육 태도의 유형은 영유아의 발달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요 학자의 양육 태도를 정리하면 첫째, 애정적-자율적 양육 태도로 이 유형은 양육 태도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양육 태도로 거론되는데, 이것은 부모들이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뿐더러 자녀들의 자율성과 독립심까지도 인정해주는 양육 태도이다. 이것은 부모들은 자유로우며 수용적 태도를 보이며 자녀들의 행동에 대하여 자율성과 같이 책임감과 의무감까지도 스스로 가지게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권리와 개성을 존중해 주고 자녀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서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준다. 이런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들은 독립적인 데다 능동적이고 사회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종남, 2014). 또한, 여러 연구에 있어 애정적, 자율적 양육 태도는 부모들에게 권고할만한 양육 태도라는 사실에 의견이 모인다(이원영, 1983).

둘째, 애정적-통제적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행동에 지나친 제약을 주는 태도로써 자녀들에게 과보호와 소유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를 보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에 있어 간섭이 심함은 물론, 독립적 행동을 하는 자녀들의 태도에 부모들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녀들에게 때때로 언어적인 통제와 심리적인 통제를 가한다. 게다가 부모들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삶을 계획하며 자녀들에게 학습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게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셋째, 거부적-자율적 양육 태도는 부모들 스스로가 애정을 가지고서 자녀를 대한다기보다는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동시에 자녀들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버려두며 방임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부모들은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녀 양육 또한 소홀히 여긴다. 이러한 부모들의 양육 태도에서는 자녀들이 불안정하고 소극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자기조절의 결핍을 가지게 된

다(유종남, 2014).

넷째, 거부적-통제적 양육 태도는 부모가 애정도 관대함도 없으며 일관성 또한 없는 자세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체벌을 가하는 권위적이며 독재적이고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권영임, 2011). 다음과 같이 부모들의 양육 태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양육 태도란 어머니가 자녀들의 양육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하고, 이원영(1983)이 주장하는 Schaefer의 애정적-거부적, 자율적-통제적 차원에 따라서 분류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접근법은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양육 태도의 경향성을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공연숙, 2011). Schaefer(1959)의 양육 태도 외에도 Backer(1964)는 방임적-지나친 간섭의 차원을 더하여, 애정적-적의 적, 제한적-허용적, 방임적-지나친 간섭의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감정적이고 요구를 받아주거나 과 보호적이다. 이것은 자녀가 잘되기를 과하게 갈망하는 태도를 말하며, 정반대의 유형은 방임형이다(김경진, 2014).

Baumrind(1971)는 통제와 성숙에의 요구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명확성과 부모의 양육 성의 4가지 차원에 기초하여서 부모들의 양육 태도를 권위적인 통제, 엄격한 태도, 허용적인 태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Maccoby, Martin(1983)은 Baumrind의 권위적인 통제, 엄격한 태도, 허용적인 태도의 유형들과 Schaefer의 애정적-거부적, 통제적-자율적 유형을 종합하여서 방임적 유형(indifferent style)으로 추가했다. Maccoby와 Martin의 방임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와 접촉을 회피하고 유아들의 욕구에 무반응 적이며, 거부적인 특징으로 설명했다. Maccoby와 Martin 후에 Dacey (1989)와 Dacey 그리고 Packer(1992)는 Baumrind의 세 가지 유형에다 네 번째 유형인 모범형(nurturant style)을 추가하였다. 모범형 부모의 양육방식 특징들은 자녀의 행동에 관하여 관심이 크나 행동 규제를 위하여 규칙은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회의에 자녀를 참여시키며, 부모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준다고 했다(서수진, 2011).

이 외에 Baldwin(1964)은 부모들의 양육 태도를 애정(affection)적, 방임(indulgence)적, 민주(democracy)적인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Roe

와 Siegelman(1963)은 애정, 거부, 방임, 요구, 관심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Crase 그리고 Clark과 Pease(1979)는 학령 전 유아들의 부모 양육 태도를 측정 가능한 평정 척도 IPBI(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를 개발했고, 요인분석을 통해서 부모들의 참여(parental involvement)와 제한 설정(limitsetting)과 반응성(responsiveness) 그리고 합리적 지도(reasoning guidance)과 자유로운 표현(free expression)과 친밀성(intimacy)으로 개념화 하였다(신명숙, 2003).

국내의 한송자(1991)는 애정적-거부적, 자율적-통제적 그리고 민주적-권위적, 의도적 무관심-과잉보호와 일관성-비일관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위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서 양육 태도의 유형은 각각 분류되고 있으나 정리해 보면 애정적 양육 태도와 거부적 양육 태도 그리고 자율적 양육 태도와 통제적 양육 태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육 태도 모형을 Schaefer (1959)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이원영(1983)이 번안하고 수정하고 보완한 네 가지 유형인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 그리고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로 분류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나. 어머니 양육 태도와 유아 발달

부모들은 유아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모든 부모가 이상적 양육 태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들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한 이유이다(조복희 외, 2014). 유아들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들의 양육 태도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중 부모의 나이 및 교육 수준, 어머니의 취업 형태, 자녀 성별, 자녀 나이에 따라서 부모들의 양육 태도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인간들은 출생과 함께 그들의 어머니들과 인간관계가 처음 시작된다. 아동들의 성장발달이 유전적인 영향보다 출생 후에서의 환경에 의해서 더욱 영향을 받고 그중에서 매우 결정적 요소 중의 하나가 어머니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돌봄의 환경이 강조되며, 아동들의 양육에 있어 어머니들

의 이해와 적절한 지원들은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어 매우 필수적 요소임이 수많은 선행연구로 인해서 밝혀지고 있다.

즉, 양육 태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아동들을 대하고 가르치며, 돌보는 양육 행동에 있어서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되고 부모들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신념과 선호하는 방식과 지향하는 양육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양육 태도는 사회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화하였으며 그 시대와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형성된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 양육자들의 신념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가진 태도들에 영향을 주므로(박성연, 2000),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 동서양 간이나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Symonds(1939)는 아동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정신분석이론을 적용한 이전에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서,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격과 인성 발달에 있어서 영향 요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부모들의 양육 태도에 관하여서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임상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를 부정적으로만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 후에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서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를 애정 vs 적의(love vs. hostility)와 자율 vs 통제(autonomy vs. control) 2가지 차원으로 분류했고 양육 태도를 해석함과 함께 양육 태도를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 태도 경향을 상대적으로 측정하고 파악하게 하여 선행 연구된 양육 태도와 관련된 연구들과 구별된 특성들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관계는 가정에서의 어머니와 관계에서 발생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동들의 결정적 발달 시기 동안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상 아동들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들이 제공하고 있는 양육 태도와 환경이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는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직접적인 아동들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아동들은 주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어머니와

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고 아동기 초기의 인간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매우 집중되며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아동들이 접하는 최초의 교사로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양육 방법은 아동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박찬수, 1985; 이은수, 1985).

어머니의 아동 양육 태도는 어머니 아동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아동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체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Becker, 1964; Schaefer, 1959), 어머니의 아동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로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제시하고 이를 어머니 아동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1] Schaefer(1959)의 양육 태도 모형
출처: Schaefer(1959), 이원영(1983) 재인용

다. 어머니 양육 태도의 영향 요인

1) 어머니의 인성

인성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 Costa와 McCrae(1980)는 신경증성(neuroticism)과 외향성(extroversion)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그리고 우호성(agreeableness)과 성실성(conscientiousness)을 인성 특성을 구성하는 기본적 5 요인으로 구분했다. 그중에서 어머니의 행동이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향성과 신경증적 성향으로 밝혀졌다(박성연, 전현진, 1999; 차윤희, 2004). 외향성은 긍정적인 정서로 대인 관계에 온정적이며,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적극적 특성을 의미하였다. 신경증성은 부정적 정서로 전반적 기분 상태가 불안, 우울하고, 적대적이고며 충동적이고, 심리적 부적응적 특성을 의미하였다(전현진, 1997; McCrae, & Costa, 1980). 어머니의 인성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Eysenck, 이현수(1985)가 한국인 정서에 맞게 표준화해 개발하였던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를 기초로 하여 일부분 수정하였던 전현진(1997)의 척도가 있다.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들의 남자아이는 정서 조절 능력이 매우 높았고 어머니들의 외향성이 낮으면 유아들은 스스로 행동을 적응적으로 조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 스스로에 대하여 자존감이 낮으며, 신경증적 특성이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화를 잘 내며, 부정적 기분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것처럼 어머니들의 인성 특성을 유아들의 정서 조절 능력 자체와 관련지어 살펴보는 연구들은 아주 드무나, 어머니들의 외향성은 유아들의 정서 조절 능력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신경증성은 유아들의 정서 조절 능력 발달에 있어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희옥 외, 2007). 어머니들의 인성 특성 중에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행동에 적극성을 자주 보였고,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친밀성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들의 우울성은 아동들의 사회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인성에 의하여 유아들의 사회 정서 발달에 끼치는 영향으로 어머니들의 인성 특성을 외향성 신경증성으로 구분하였고, 유아들의 사회 정서발달은 기본 정서와 자아개념 그리고 인지 조절과 정서 조절과 사회적 관계로 하위요인을 선정해서 연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의 관련 성과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 부모의 연령에 따른 양육 태도

부모들의 나이에 따른 부모들의 양육 태도를 살펴보자면, 부모들의 나이별 양육 태도의 차이는 나이에 따른 부모들의 성장 환경의 차이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보았다. 김순덕 (1991)은 어머니들의 나이가 작을수록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 그리고 성취 적 양육 태도를 나타낸다고 했다. 이원영(1983)은 어머니들의 나이가 31세~35세 일 때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36세 이상일 때는 제일 낮게 나타나서 어머니의 나이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변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의 나이에 따른 양육 태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국형윤, 2012; 김근선, 2011; 이선희, 2000)가 있다. 이것은 어머니 양육 태도가 어머니들의 나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큰 영향은 아님을 의미한다.

3) 어머니의 최종 학력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양육 태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허은주(1988)는 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애정적인 양육 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했다. 박미옥(1994)도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거부적인 태도가 낮게 나타났다. 안현지(1999)는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가 더 애정적이며 자율적이라고 했다. 대부분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과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것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들의 호기심에 높은 가치를 두었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들은 유아들의 호기심보다는 복종과 정직 그리고 청결 등등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하여 많은 가치를 두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의 교육 수준은 양육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4) 어머니의 취업 형태

권유경(2010)은 주 양육자가 직업을 가진 경우에 아동에 대하여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양육자가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자녀들을 더 민주적으로 대함을 알 수 있음을 연구에서 밝혀냈다. 그리고 주 양육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본 결과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주 양육자와 종일제 근무를 하는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 양육자들의 근무시간이 유아를 양육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5) 자녀의 성별

성숙란(2007)은 유아들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를 보면 자율적 태도에 대해서 남자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여자아이를 가진 어머니들보다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가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보다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양육 태도를 보이며, 여아를 둔 어머니는 거부적 태도에서 더 높은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율적 태도에서 남자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평균이 여아를 둔 어머니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자녀의 연령

유아들의 나이에 따른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에서는 애정적 태도에 있어서 만 4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가 만 3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자율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에서는 만 3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평균 점수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애정적 태도에 대해서 만 4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들의 평균이 만 3세의 유아를 둔 어머니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유아들의 친 사회적인 행동의 발달은 옛날 우리 사회의 또래 동네 놀이 문화가 어우러져 형과 친구와 아우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긍정적인 방식의 습문으로 학습되었지만, 현대의 핵가족화된 생활방식은 더더욱 가족 내에서의 초기 경험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친 사회적 행동은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나누기, 협동하기, 돕기, 감정이입, 우정 나누기,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하기 등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한다(Walsh 1980). 유아기는 친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Maccoby, 1980; Saarni, 2000). 유아들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또래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며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감정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하는 친 사회적인 행동을 발달시킨다(박성연 · 도현심, 1999: 재인용). 이처럼 대인 간의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고 상대방의 사고·감정·의도 등을 추리해 내는 능력은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친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박지혜, 2006). Olweus(1986)은 친 사회적인 행동의 핵심적 개념을 도움 주기와 제공하기 그리고 개선 시키기 등등과 같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행동이라고 하였고, 이때 타인에게 주는 이익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가. 친 사회적 행동 발달이론

1) 정신분석이론

Freud 학파는 영아나 유아들에 있어서 친 사회적 행동들은 초자아가 발달할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으나 5세~6세가 되면 도덕성의 내면화된 표

출 체계인 초자아가 자아에서부터 발달하게 되어서 초자아가 도덕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아들은 초자아가 발달 된다. 그리고 초자아가 발달하며 부모들의 태도와 가치, 그리고 행동 등등을 내면화하여서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따르게 되고 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한다. 이는 타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을 타인의 관점에서 객관화하여 볼 수 있게 됨으로써 형성된다고 하였고 타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형성과 더불어 초자아가 형성되고 친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정신분석학 측면에서 보면 친 사회적 행동은 유아들이 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초자아를 형성됨과 성인의 친 사회적인 도덕적 가치를 동일시를 통해서 내면화되는 것을 뜻한다

2)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친 사회적 행동은 인간의 행동 습득과 함께 학습의 과정이며,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지만, 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모델을 관찰하며,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하여 가르침, 강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친 사회적 행동들을 습득하게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여 유아는 관찰 대상자들의 행동 관찰뿐만이 아니라 모델들의 모방과 동일시를 통하여서 새로운 행동유형들을 학습한다고 보았고 내부적인 자신의 강화를 통해서 친 사회적 행동을 자습하고, 관찰, 모방 때문에 모델학습과 언어 교수법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 등등을 통해서 친 사회적인 행동들은 발전된다고 했다. 사회적 이해 활동들 속에 관찰, 모방과 동일시의 방법을 통해서 친 사회적 행동들의 규칙들과 규범을 획득하며, 유아들의 행동에 대하여 남들의 반응을 통해 유아는 사회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유아는 사회적인 이해 활동을 통해서 친 사회적 행동들을 행하는 교사와 또래들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친 사회적인 행동들을 습득한다. 더군다나 친 사회적인 행동은 유아들의 나이가 증가하며 지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더 많은 복합적이며 사회학습 경험이 가능하고 따라서 친 사회적인 행동들의 범위는 더욱더 넓혀져 간다.

3) 인지발달 이론

인지발달은 유아가 성장, 발달해 감에 따라 일어나는 인지 기능의 변화를 말한다 (교육심리학 용어 사전). 유아는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형성된다(이상권, 2005). Piaget의 지적 능력의 뚜렷한 발전적 변화는 유아의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발달의 지표를 보여준다(김한중, 1995).

인지발달 이론은 유아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타인의 요구, 관점 그리고 감정에 대하여 이해를 함으로써 친 사회적인 행동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입장으로 Piaget는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게 되면 유아들의 자기중심적인 견해에서 탈중심화되어 인지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서 타인의 요구, 견해, 역할 등등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등이 증가하게 되고, 곤경에 처하여 있는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것은 유아들이 나이에 따라서 인지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남들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게 됨으로 친 사회적인 행동들을 발달 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인지발달 이론은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봄으로 조망 수용과 역할수용 그리고 도덕적 판단 등등의 인지능력 발달이 친 사회적인 행동 발달의 선행조건이 됨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인지발달 이론은 친 사회적인 행동을 유아들이 외부의 자극 요소 등을 어떻게 지각하며 이해하고 의미 있게 개별화하여 나가는가 하는 인지발달과정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피아제 인지 발달이론의 주요 개념은 도식, 적응, 조직화, 보존, 자아 중심성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다는 인지발달은 유아가 성장, 발달해 감에 따라 일어나는 인지 기능의 변화를 말한다 (교육심리학 용어 사전). 유아는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형성된다(이상권, 2005). Piaget의 지적 능력의 뚜렷한 발전적 변화는 유아의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발달의 지표를 보여준다(김한중, 1995).

인지발달 이론은 유아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타인의 요구, 관점 그리고 감정에 대하여 이해를 함으로써 친 사회적인 행동이 가

능해진다고 보는 입장으로 Piaget는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게 되면 유아들의 자기중심적인 견해에서 탈중심화되어 인지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서 타인의 요구, 견해, 역할 등등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등이 증가하게 되고, 곤경에 처하여 있는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것은 유아들이 나이에 따라서 인지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남들의 관점과 감정을 이해하게 되므로 친사회적인 행동들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인지발달 이론은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봄으로 조망 수용과 역할수용 그리고 도덕적 판단 등등의 인지 능력의 발달이 친 사회적 행동 발달의 선행조건이 됨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인지발달 이론은 친 사회적 행동을 유아들이 외부의 자극 요소 등을 어떻게 지각하며 이해하고 의미 있게 개별화하여 나가는가 하는 인지 발달 과정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Piaget 인지 발달이론의 주요 개념은 도식, 적응, 조직화, 보존, 자아 중심성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다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과 달리 Vygotsky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Piaget는 선천적으로 성장하면서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 했고 Vygotsky는 후천적으로 환경에 따라 인지의 발달 정도가 다르다고 보았다. 인지발달 이론과 달리 Vygotsky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Piaget는 선천적으로 성장하면서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 했고 Vygotsky는 후천적으로 환경에 따라 인지의 발달 정도가 다르다고 보았다.

나.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발달의 중요성

유아기의 친 사회적 행동들은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남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집단에서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들이 친 사회적 행동이라고 했다(김규수·박승순·

권소영, 2003). 친 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돕기와 협동하기 그리고 나눠주기 등등의 남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뜻한다. 즉 다른 사람을 도와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을 친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Doescher Sugawara, 1989).

그중 지도력은 사회적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되는 개념으로, 지도력이 높은 아동은 성숙한 도덕 추론을 하며(Berkowitz, 1972), 또래에 의해 잘 도와주는 친구라고 판단된다(Carlson, 1984)고 하였다. 지도력은 긍정적 사회적인 능력의 하나나, 이정아(1995)의 연구에서는 지도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지도력이 아동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정희원·김경연(1998)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하여 유아들 개인적 변인의 영향에서 보면 지도력이 높은 아동들이 친 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면 지도력이 높은 아동이 또래들보다 타인을 많이 도와주는 친구라 인식되며 인기도 높고, 지도력이 높은, 또래 관계를 길게 유지하고, 타인에게 친 사회적 행동을 하고 받은 경험이 많으며, 동기는 외부적인 보상이기보다 내부적 기쁨이거나 책임감과 죄의식으로 많은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McGinnis와 Goldstein(1990)은 이것을 발전시켜서 친 사회적 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40개의 하위 기술들을 제안했다. 이것은 훨씬 수준이 높고 기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과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기술과 친구와 우정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기술과 공격에 대하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술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크게 6가지 범주로 친 사회적 행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조화했다.

우희정(1990)은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동들의 사회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획득되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의 증진이 곧 친 사회적 행동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4. 어머니의 인성 특성, 양육 태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선행 연구

가. 어머니의 인성 특성 선행연구

노경아(2016) 어머니의 인성 특성 중 외향성은 영아의 사회 정서 발달을 높이고,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많은 통제적 양육 행동을 하게 되므로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받으며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김나희 외, 2012). 모-자 상호관계는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윤화연, 2013).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인성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영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의 하위 요인 중 자아개념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의의가 있다. 영유아의 원활한 사회 정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연구되어 왔으며(이정순, 2002; 유진희, 2006; 유희정, 2003), 영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부모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인성 특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 및 대안의 필요성과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만 2세 영아 사회 정서발달 과정에서 사회 정서 하위요인 중 자아개념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신경증적인 어머니의 부정적인 인성 특성을 감소시키고 외향적인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영유아의 사회 정서발달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어머니의 인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영유아의 사회 정서발달 중 만 2세 나타나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사회 정서발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승원(2012)은 부모의 성격특성인 심리적 성숙이나 분화가 잘 되면 더

육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내지만, 불안이나, 우울증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적절치 못한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요약할 수 있다(Belsky & Vondra, 1993). 어머니의 긍정적 특성인 외향성과 긍정적 정서 표현은 유아의 긍정적인 정서 조절 능력에, 어머니의 부정적 특성인 신경증성과 부정적 정서 표현은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 조절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 표현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함으로써,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발달에 어머니의 정서 표현이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박혜성, 2011).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인성 특성과 자녀의 문제 행동, 사회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인성 특성이 유아의 문제 행동이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며(Davies & Cummings, 1994; Downey & Coyne, 1990), 부모의 우울이나 신경증과 같은 부정적 특성이 자녀의 공격성이나 일탈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Richters & Pelligrini, 1989).

송은교(2012)는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 중 하나임을 밝히고 있으며, 부모의 인성 특성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흐름을 보여준다(Belsky, 1984; Clark, Kochanska, & Ready, 2000). 즉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양육 행동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애 · 최희 · 박인전, 2002; Belsky, 1984). 개인이 지니는 성격, 곧 인성 특성에 대하여 심리학 분야에서 여러 학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성 특성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인성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성(Neuroticism),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5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Hough & Schneider, 1996). 특히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외향성과 신경증성은 대표적으로 연구돼 온 인성 특성으로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외향성과 신경증성은 양육 행동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외향성과 신경증이 자녀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박성연 · 전현진, 1999; 이승화,

2001; Hough & Schneider, 1996; Rowe, 1994).

박혜성(2011)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에 대한 인성 특성의 영향과 관련하여, 어머니는 외향성이 높고 신경증성이 낮을수록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였으며, 신경증성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는 연구결과(Hughes & Gullone, 2010)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 표현을 덜 한다는 연구 결과(여은진, 2009)도 어머니의 특성이 정서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들(Belsky, 1994; Smith, 2007)과 일치한다.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정서 표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서 표현을 양육 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할 때, 부모의 외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유형과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며, 어머니의 신경증성이 높을 때는 온정적 양육 행동을 적게 보이고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자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김나희, 2010; 김연옥 · 김영희, 2002; 전현진 · 박성연, 1999)과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조은하(2013)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볼 때 부모의 인성 지도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가정과 유아 교육기관이 연계한 유아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가정은 도덕적 태도의 형성, 유아 교육기관은 도덕적 사고의 훈련, 사회는 도덕적 원리의 실제적 적용을 분담함으로써 인간의 성장을 평생 교육적 안목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전체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바람직한 품성의 발달을 돕고, 이는 영유아기에 어떤 경험과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인격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하였다.

나. 어머니의 양육 태도 선행연구

성숙란(2007)은 유아들의 성별에 따라서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는 남자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인정하며 스스로 일들을 처리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유아들의 나이에 따라서 어머니들 양육 태도는 유아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애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 어머니는 남자아이에게 자율적 태도를 보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애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이것은 대구지역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조금 더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고 자녀들을 양육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아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유아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친 사회적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은, 타인과의 의견조절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여아가 높았고, 유아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아들의 사회적,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였고, 모방 학습의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기술이 발달하여서 유치원 적응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여아가 대인관계 형성 능력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적응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아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에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유치원 적응 능력에서 어머니 양육 태도가 통제적일수록 낮아지고, 자율적일수록 유치원 적응 능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통제적 태도를 가질수록 유아들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적응이 힘들어지며,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가질수록 유치원 적응 능력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자율적이거나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유아들은 유치원 적응 능력을 통하여 타인들과 함께 집단에 적응하기 때문에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이혜란(2018)은 양육 태도라고 하는 것은 주 양육자가 아동들에 관해 취하는 일반적 태도와 행동, 다시 말하자면 유아기 때의 훈육과 생활 훈련 그리고 전반적 유아 양육의 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를 뜻한다(한국 유아교육학회, 1996). 이런 부모들의 양육 태도는 유아들의 성격, 행동 형성, 인지, 정서 그리고 사회성 등등의 발달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김은숙, 2012). 그리고 부모들의 역할과 양육 태도는 부모들의 성장 과정, 성격 등등 여러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의와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김금선, 2011). Becker(1964)에 의하면 양육 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며, 이는 자녀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최현진, 2016). 이원영(1983)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부모들의 양육 태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으로 주 양육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윤수(2003)는 부모가 속해있는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회 등등은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권위주의적, 민주적이고 허용적 방법 등등으로 자녀들을 기르게 된다. 부모로서 역할에 적합하다 느낄 때라야 비로소 자신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더 올바르다고 했으며 자녀의 수와 성 그리고 특성에 만족해하는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들보다 더 호의적이라고 했다. 즉, 자아 중심의 부모들의 능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양육 태도는 매우 달라진다고 했다.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아주 다양하고 조금 상충하는데 그 이유에는 측정 도구와 연구대상 등등에 있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조은하(2013)는 어머니 스스로가 긍정적 양육 태도를 보일수록 유아들이 문제행동을 적게 함을 예측할 수 있고 애정-자율적 양육 태도는 유아들의 문제행동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통제-거부적 양육 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와 유아들의 문제행동의 하위 변인 사이에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들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 태도들과 자녀들의 문제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말한 이찬숙과 현은자(2008)의 연구 결과는 부모들이 거부적, 의존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유아들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손소영(2004)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유아들은 어머니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에 어머니들의 간접적이며 통제적인 부정적인 양육 태도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시사한다고 하였다. 권위적인 부모들의 자녀들은 책임감과 자신감 그리고 사회성은 높지만, 권위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대인관계가 비효율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복종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 또한 허용적 부모의 자녀는 자신감이 있고 적응을 잘하는 편이나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방임형 부모의 자녀는 독립심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며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정옥분, 2002 재인용), 부모는 자녀와의 접촉이 가장 많고 자녀의 일상생활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다.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선행연구

이혜원(2011)의 연구는 유아들의 친 사회적 발달과의 관계 중 유아들의 대인관계의 적응성이 유아들의 사회적인 유능 감에 대하여 영향을 준다는 정영선(2004)의 연구, 유아들의 기질과 유아들의 사회적 발달에 차이가 있다는 민혜영(1998)의 연구, 기질이 사회 적응력과 관계가 높다는 백연실(1999)의 연구, 기질이 사회 적응력과 관계가 높다는 최경희(2005)의 연구 결과와 연결해서 논의된다. 다시 말하자면 남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에 아주 민감하며 바르게 인식하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아들의 이런 기질적인 성향은 유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끌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기 때의 친 사회적인 행동들은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남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사회 구성원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집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들이 친 사회적 행동이다(김규수·박승순·권소영, 2003). 친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돕기와 협동하기 그리고 나눠주기, 등등의 남들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타인을 돕거나 타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친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했다(Doescher Sugawara, 1989).

그중에서도 지도력은 사회적 능력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개념으로, 지도력이 높은 아동들은 성숙한 도덕 추론을 하고(Berkowitz, 1972), 또래에 의해서 잘 도와주는 친구라고 판단되어 진다(Carlson, 1984)고 하였다. 지도력은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 중의 하나이지만, 이정아(1995)의 연구에서는 지도력이 높은 아동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자주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지도력이 아동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주는 영향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희원·김경연(1998)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하여 아동들 개개인의 변인의 영향에서 지도력이 높은 아동들이 갖은 친 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결과를 보면 지도력이 높은 아동이 또래에 의하여 타인을 잘 도와주는 친구라고 인식되고 인기도 많으며, 지도력이 높아, 또래 관계를 길게 유지하고, 남들에게 친 사회적 행동을 했거나 받은 경험이 많으며, 친 사회적 동기가 외부적 보상보다는 내부적 기쁨, 책임감이나 죄의식일 때 더욱 갖은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나타났다. 우희정(1990)은 아동들의 친 사회적 행동을 증진 시키는 것이 아동들의 사회화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자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획득되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의 함양이 바로 친사회적 행동이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은하(2013)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들은 일반적 행동 습득과 함께 자극을 반응한 결과로 보고, 반응한 행동을 보상 때문에 강화 받음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이다(박용헌, 1984). 다시 말해서 친 사회적 행동은 외적 보상에 의한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건화되어서 그 후에

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외적인 보상이 없어도 친 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Bandura(1977)는 인지적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행동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인지도 아동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했다. 갑작스러운 아동들의 행동 변화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인 조건 형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된다고 주장하였다.

친 사회적 행동은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질, 양육 경험,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발달 시기에 가치와 필요성과 방법을 이해하는 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이점숙, 1984; 최숙경, 2004; Knight, Berning, Wilson, & Chao, 1987).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아들은 2세 이전에 함께 울며, 위로하고, 물건들을 나누어 가지는 행동들을 보이고, 2세 이후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보이며 고통 중인 남을 위로할 줄 아는 행동들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도와주기와 돌보기 그리고 나누어 갖기 등 동정과 같은 친 사회적 행동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영자·유효순·이정옥, 2001).

이후 유아기에 이르러서 4~6세 경에는 친구나 자기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또래들에게 더 관대하며, 도움을 주는 행동을 자주 하고며, 칭찬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등의 (Stockdale, Hegland, & Chiaromonte, 1989) 친 사회적인 행동에 많은 향상을 보이며, 이러한 유아기 때는 자기 중심성에서 차차 벗어나서 상대방의 사고나 감정들을 추리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친 사회적인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알려졌다(Maccoby, 1980; Saarni, 2000). 친 사회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는 유아들은 유치원 생활에서 원만하게 적응하며 또래 간에서도 인기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여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귀자, 2004; 김정인, 2001; 이현숙, 2006; 장선철·김수영, 2007), 친 사회적인 행동은 사회 정서뿐만이 아니라 인지발달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 적응에 아주 필요한 요소로 보인다. 요약해 보면, 친 사회적 행동은 유아들의 적응적 행동에 꼭 필요한 요인이므로

영아기에 나타나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발달 양상을 보이고 특히나 유아기야말로 친 사회적 행동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박수진(2019)은 친 사회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발적이며 의도적 행동으로 정의되며, 이때의 친 사회적 행동 동기는 긍정적, 부정적일 수 있고,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다(Eisenberg & Miller, 1987; 김재원, 2018에서 재인용). 이타적인 행동은 아무런 기대, 의무감 없이도 남들의 이익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박선영, 2010). 두 가지의 뜻하는 바가 같이 사용될 때도 이타적인 행동은 여러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주어지는 어떤 보상 없이도 남들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행동으로서 감정이입을 동기로 보는 경우이다(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다시 말하자면, 친 사회적 행동은 남을 돕고 이롭게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돕기 위해 행하는 이타적인 행동뿐만이 아닐뿐더러 남을 도운 후에 따라오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도움 행동도 모두 포함된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영아기부터 이타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서 광범위하게 발달하곤 한다(김재원, 2018). 그리고 초자아가 발달하는 유아기가 되면서 유아들의 사회적인 행동들은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부모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동일시를 통하여 사회적인 가치와 금기 사항 그리고 사회적 형태 등등을 내면화한다고 하였다(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그러므로 유아기에는 사회적 행동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론은 정신분석이론(psychoanalytic theory),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신분석 이론(psychoanalytic theory)은 성격의 구조를 이루는 초자아의 발달과 함께 친 사회적 행동이 단계적으로 함께 발달한다고 봤다.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의하면 영유아일 때는 타인의 요구와 느낌에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바로 행동하기에 초자아가 발달 될 때까지는 타인을 염려하는 등의 친 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

4, 5세가 되면서 차차 내면화된 표상 체계의 초자아가 자아로부터 발달하여 초자아가 도덕적 가치를 동일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친 사회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지영, 2012). 다시 말하면 초자아가 점차로 발달해 나가면 유아들은 부모들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가치관 등등을 내면화시키며, 사회적·도덕적 가치를 따르고 친 사회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 사회학습 이론(social-learning theory)은 정신분석 이론이 내적인 동기와 정서 그리고 본능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보상과 모형화와 같은 환경적 결과에 따라서 학습된다고 했다. Bandura(1977)은 유아기는 외부적 강화보다는 내부적 자기 강화를 통해서 친 사회적 행동을 자기 스스로 습득한다고 했고, 이때 유아 자신의 자기 강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타인의 행동과 주어진 상황을 관찰하면서 모방에 의한 모형화와 경험 그리고 언어 교수법 등이라고 했다(문연심, 이옥형, 2002 재인용). 다시 말하자면 유아들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계속적 성숙으로 인해서 전보다 많은 복합적 사회학습 경험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친 사회적인 행동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간다고 보았다.

끝으로 인지발달 이론(cognitive-developmental theory)에서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친 사회적 행동이 인지발달의 성장과 같이 단계적으로 발달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획득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Bar-Tal, 1976; 홍혜란, 2008 재인용). Piaget(1965)에 의하면 전조작기 유아들은 아직 자신의 관점에 몰입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타인의 상황과 욕구를 인식하는 것에는 미숙하지만, 구체적 조작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의 반응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며, 역할 수용과 감정이입의 발달로 친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명조, 2005). 다시 말하자면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은 단순히 자극 반응의 결과로만 습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외부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자극 요소를 이해하며 지각하고 의미가 있고 개념화해 나가는 인지 발달과정에 따름을 알 수 있다.

친 사회적인 행동유형에 관하여 많은 학자마다 각각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하였다. 친 사회적 행동이 타인의 복지를 발전시키는 동정, 친절, 자선, 돕기, 교환, 기부, 이타성, 나누어 갖기로 Bal-Tal(1974)은 정의하였고, Eissenber & Hand(1979)는 돕기, 위로, 나누기, 사회적 행동하기 이타성, 사회적 행동하기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타성과 사회적 행동하기는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남을 이롭게 하는 자발적이며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는 가장 높은 질적 수준의 돕기행동 유형이라고 했다(홍혜란, 2008).

또한 Walsh(1980)은 친 사회적 행동은 남들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나오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보고 돕기와 나누어 갖기 그리고 협동하기와 감정이입 등등의 바른 행동으로 정의했다. Mcginnis & Goldstein(1990)은 사회적 행동을 증진 시키기는 방법을 우정을 만드는 기술과 감정 조절하기와 기초적인 사회적 기술 그리고 공격성에 대해 제시하기와 학교와 연관된 기술과 스트레스 조절하기로 구조화했다.(김정인, 2001).

국내의 연구자 김영옥(2003)은 각각 개인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구축하는 것을 사회적 행동이라 정의하였고, 나누기와 지도 성 그리고 의사소통과 접근하기와 도움 주기와 감정이입 및 조절하기와 주도적 배려의 7가지로 정의했다.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는 사회적인 행동유형을 3가지로 범주화했다. 사회적 행동유형은 개인 정서 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유치원 적응 능력으로 면접 상황에서 유아들의 표현이 가능한 기본적 사회적 덕목의 수행과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행동들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개인 정서 조절 능력은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정서를 확실히 인식하며 의 정서적 반응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했다. 다음은 대인관계 형성력은 사회 안에서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이것을 유지하고 대인관계에서 발생 되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끝으로 유치원 적응 능력은 유치원에서의 생활 규칙과 질서를 이해하며 또래와 성인들과도 만족스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적응 능력을 뜻한다. 친 사회적 행동은 남들을 이해하며 돕는 모든 행동으로 자기에 돌아온다는 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

이 의도적이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의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의 기관장에게 직접 사전 연락하고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한 참여의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는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20일간 오프라인 설문 방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자는 전일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설문조사는 자기 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179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이 중 빠진 항목이 있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총 150부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N=150)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머니 연령	20대	7	4.7
	30대	82	54.7
	40대 이상	61	40.7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2	1.3
	고등학교 졸업	13	8.7
	대학교 졸업	110	73.3
	대학원 졸업	25	16.7
어머니 취업형태	정규직	86	57.3
	비정규직	13	8.7
	아르바이트	6	4.0
	미취업	45	30.0
자녀 성별	남자	32	21.3
	여자	118	78.7
자녀연령	3세	32	21.3
	4세	33	22.0
	5세	52	34.7
	6세	15	10.0
	7세	18	12.0

2. 측정도구

가. 어머니의 인성 특성

어머니의 인성 특성은 Eysenck와 Eysenck(1975)가 함께 개발하였던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를 기초로 하여 측정했다. EPQ는 Eysenck와 이현수(1985)가 한국인들에게 맞도록 표준화했으며, 강인성 또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P)과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 - introversion, E) 그리고 정서 성 또는 신경증성 경향성(neuroticism, N)과 허위성 또는 사회적 욕망성(lie, L)의 4가지 성격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인용과 아동용이 있다. 이 4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본 연구에는 선행연

구의 고찰(Belsky & Vondra, 1993; Rowe, 1994)를 통해서 부모들의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향성과 신경증성 2가지 영역만을 선택해서 사용했다.



[그림 III-1] 인성 특성 평정 척도의 하위요인
출처: Belsky & Vondra, 1993; Rowe, 1994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전현진(1997)이 수정 보완해서 사용한 외향성 20문항 그리고 신경증성 23문항으로 총 43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문항을 제외한 외향성(13문항)과 신경증성(16문항)으로 총 29문항을 선별해서 사용했다[그림 III-1]. 어머니들의 인성 특성 측정 방법은 EPQ 원본에서는 문항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응답하게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자는 문항을 수정하여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고, 외향성 점수가 높으면 우호적 열성적이고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성향을 뜻한다. 높은 신경증성의 점수는 적대적이고 우울 불안감을 느끼며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자아 강점(ego strength)이 낮은 성향을 뜻한다. 외향성 문항을 살펴보자면 ‘나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활기가 넘친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신경증성 문항에는 ‘나

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군다.’ ‘나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등등의 문항을 들 수 있다. 어머니들의 인성 특성에 대한 질문지의 하위요인에 따른 문항과 Cronbach's α 값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어머니 인성 특성 질문지 문항수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외향성	1-13	13	.931
신경증성	14-29	16	.891
전 체		29	.792

나. 어머니의 양육 태도

본 연구에는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Schaefer(1959)가 개발했고 이원영(1983)이 번안했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척도를 근거하여 추성경(2011)의 척도를 사용했다. 이원영은 31개월~72개월의 유아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척도의 문항 구성은 애정적 양육 태도 12문항과 거부적 양육 태도 12문항 그리고 자율적 양육 태도 12문항과 통제적 양육 태도 12문항 등 4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어머니들이 평소에 자녀 양육에서 나타나는 태도들을 각각 문항에 따라서 ‘전혀 아님 1점’과 ‘약간 그러함 2점’과 ‘보통 3점’ 그리고 ‘대체로 그러함 4점’과 ‘항상 그러함 5점’으로 응답하는 형식이다. 각 영역의 문항에 대하여 응답한 총 점수를 더한 값을 총점으로 보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들의 해당 영역의

양육 태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양육 태도 척도에 대한 하위요인과 세부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 III-3>와 같다.

<표 III-3> 양육태도 검사의 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애정적 태도	1, 5, 7, 23, 24, 25, 26, 27, 28, 35, 36, 37	12	.85
거부적 태도	3, 4, 14, 16, 17, 19, 29, 30, 31, 32, 33, 34	12	.78
자율적 태도	2, 6, 11, 12, 13, 15, 38, 39, 40, 41, 42, 43	12	.70
통제적 태도	8, 9, 10, 18, 20, 21, 22, 44, 45, 46, 47, 48	12	.66
전 체		48	.72

다.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옥(2003)의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를 간편 형 척도로 재구성한 서소정 (2006)의 척도를 사용했다. 김영옥 (2003)의 척도에는 유아들의 일상적인 놀이 상황에 나타나는 친 사회적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7개의 하위영역에 총 42 문항으로 구성돼 있지만, 서소정 (2006)이 정한 간편 형 척도에는 4개 하위영역에 14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각각의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의 5점까지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 수록 친 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친 사회적 행동의 각 하위요인의 문항 번호,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나누기	1, 2, 3	3	.79
도움주기	4, 5, 6	3	.78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7, 8, 9, 10	4	.68
지도성	11, 12, 13, 14	4	.70
전 체		14	.85

평가 척도를 간편 형 척도로 재구성한 서소정(2006)의 척도를 사용했다. 김영옥(2003)의 척도에는 유아들의 일상적인 놀이 상황에 나타나는 친 사회적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7개의 하위영역에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소정(2006)의 간편 형 척도에는 4개 하위영역에 14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평가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 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친 사회적 행동의 각 하위요인의 문항 번호와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III-4>와 같다.

나누기에 있어서는 또래에게 장소와 기회 그리고 소유물을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장난감 등등 소유물 나누기와 놀이 공간 공유하기 그리고 놀이 기회의 양보하기와 관련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에서는 또래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래의 감정과 정서에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 등등으로 관심을 가지기와 또래의 감정을 생각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대하기와 또래들과의 갈등이 발생할때에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기와 어려운 문제해결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기의 4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지도 성에는 놀이를 먼저 제안할 수 있고 놀이 상황을 먼저 이끌어 나갈 수 있거나 혹은 말은 놀이 역할에 대하여 충실히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놀이를 먼저 제안하기와 놀이 상황에서 리더 역할 수행하기 그리고 자신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소유와 놀이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 수행하기 등과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의 문항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5$ 이었다.

3. 자료 분석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제 III 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제 IV 장에서는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제 V 장에서는 결론을 지으면서 논문 전반에 대한 제언을 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III-5> 연구절차

연구절차단계	세부내용
선행연구 탐색	어머니의 인성 및 양육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연구설계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계획 수립 측정 도구 구성 설문지 작성 자료 수집계획 수립
1. 측정 도구 사전검사 2. 실험 도구 실행 3. 측정 도구 사후검사	연구대상: 부산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 150명 조사 기간: 2021년 1월 ~ 2월 측정 도구: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조사, 인성 특성, 양육 태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척도
자료 분석, 연구 결과	SPSS 26.0으로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고 결과 도출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인 어머니의 인성 특성, 양육 태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측정변수들의 정상분포를 확인하고자 함이며, 정상분포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분석 결과의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조은아, 2015).

먼저 어머니의 인성 특성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외향성은 $M=3.435(SD=.627)$, 신경증성은 $M=2.509(SD=.703)$ 이다. 다음으로 양육 태도는 애정적 태도가 $M=3.768(SD=.553)$, 거부적 태도가 $M=2.632(SD=.508)$, 자율적 태도가 $M=3.446(SD=.452)$, 통제적 태도가 $M=3.231(SD=.443)$ 이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은 나누기가 $M=3.744(SD=.761)$, 도움 주기가 $M=3.767(SD=.788)$, 감정이입과 조절하기가 $M=3.550(SD=.705)$, 지도 성이 $M=3.515(SD=.755)$ 이다.

다음으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왜도는 분포곡선의 대칭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포의 치우친 정도를 의미한다. 왜도 값이 0이면 정규 분포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왜도 값이 0이 산출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음으로 첨도는 분포곡선이 중심으로 집중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뾰족하거나 평평한 정도를 의미한다. 첨도의 값이 0이라면 정규분포를 의미하고, 0보다 크면 뾰족한 형태이고 0보다 작으면 평평한 형태로 데이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표준 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10보다 크면 분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절대값이 20을 넘으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한다(DeCarlo, 1997; Kline, 2005; 문수백, 2009). 분석 결과 왜도는 최소 -0.455 에서 최고 0.478 , 첨도는 최소 -0.613 에서 최고 0.733 의 값을 보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수집

된 자료의 정상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Kline, 2015). 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IV-1>에 제시하였다.

< 표 IV-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50)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인성특성	외향성	3.435	.627	.478	.041
	신경증성	2.509	.703	-.104	.074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3.768	.553	-.224	-.613
	거부적 태도	2.632	.508	-.455	.069
	자율적 태도	3.446	.452	.034	-.315
	통제적 태도	3.231	.443	.053	.733
친사회적 행동	나누기	3.744	.761	-.251	-.432
	도움주기	3.767	.788	-.266	-.262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3.550	.705	.177	-.418
	지도성	3.515	.755	.094	-.374

2. 집단별 차이 분석

가. 어머니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분석 결과,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하위 요인인 나누기는 20대가 $M=3.857$, $SD=.960$, 40대 이상이 $M=3.749$, $SD=.711$, 30대가 $M=3.732$, $SD=0.788$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다음으로 도움 주기는 40대 이상이 $M=3.792$, $SD=.743$, 30대가 $M=3.764$, $SD=.792$, 20대가 $M=3.571$, $SD=1.182$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감정이입과 조절하기는 40대 이상이 $M=3.598$, $SD=.623$, 20대가 $M=3.536$, $SD=.883$, 30대가 $M=3.515$, $SD=0.753$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마지막으로 지도 성은 20대가 $M=3.679$, $SD=.773$, 40대 이상이 $M=3.590$, $SD=.730$, 30대가 $M=3.445$, $SD=0.774$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어머니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인 나누기, 도움 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2> 어머니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N=150)

		M ± SD	F	p
나누기	20대	3.857±0.960	0.088	.916
	30대	3.732±0.788		
	40대 이상	3.749±0.711		
도움주기	20대	3.571±1.182	0.245	.783
	30대	3.764±0.792		
	40대 이상	3.792±0.743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20대	3.536±0.883	0.242	.785
	30대	3.515±0.753		
	40대 이상	3.598±0.623		
지도성	20대	3.679±0.773	0.815	.445
	30대	3.445±0.774		
	40대 이상	3.590±0.730		

나. 최종학력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최종 학력에 따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3>과 같다. 분석 결과 친사회적 행동 중에서 하위 요인인 나누기는 고등학교 졸업이 $M=4.154$, $SD=0.603$, 대학원 졸업이 $M=3.840$, $SD=0.695$, 중학교 졸업이 $M=3.833$, $SD=0.263$, 대학교 졸업이 $M=3.673$, $SD=0.768$,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다음으로 도움 주기는 중학교 졸업이 $M=4.333$, $SD=0.471$, 고등학교 졸업이 $M=3.949$, $SD=0.650$, 대학원 졸업이 $M=3.853$, $SD=0.758$, 대학교 졸업이 $M=3.853$, $SD=0.758$,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감정이입과 조절하기는 고등학교 졸업이 $M=3.769$, $SD=0.625$, 대학원 졸업이 $M=3.710$, $SD=0.742$, 중학교 졸업이 $M=3.625$, $SD=0.530$, 대학교 졸업이 $M=3.486$, $SD=0.705$,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마지막으로 지도 성은 중학교 졸업이 $M=3.875$, $SD=0.177$, 고등학교 졸업이 $M=3.731$, $SD=0.703$, 대학원 졸업이 $M=3.600$, $SD=0.791$, 대학교 졸업이 $M=3.464$, $SD=0.759$,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어머니의 최종 학력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인 나누기, 도움 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 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최종 학력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N=150)

		M ± SD	F	p
나누기	중학교 졸업	3.833±0.236	1.746	.160
	고등학교 졸업	4.154±0.603		
	대학교 졸업	3.673±0.786		
	대학원 졸업	3.840±0.695		
도움주기	중학교 졸업	4.333±0.471	0.830	.479
	고등학교 졸업	3.949±0.650		
	대학교 졸업	3.715±0.813		
	대학원 졸업	3.853±0.758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중학교 졸업	3.625±0.530	1.157	.328
	고등학교 졸업	3.769±0.625		
	대학교 졸업	3.486±0.705		
	대학원 졸업	3.710±0.742		
지도성	중학교 졸업	3.875±0.177	0.776	.509
	고등학교 졸업	3.731±0.703		
	대학교 졸업	3.464±0.759		
	대학원 졸업	3.600±0.791		

다. 취업 형태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차이

어머니의 취업 형태에 따라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분석 결과,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하위요인 중 나누기는 비정규직이 $M=3.949$, $SD=0.826$, 아르바이트가 $M=3.944$, $SD=0.136$, 정규직이 $M=3.725$, $SD=0.812$, 미취업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다음으로 도움 주기는 비정규직이 $M=4.051$, $SD=0.665$, 미취업이 $M=3.756$, $SD=0.617$, 정규직이 $M=3.752$, $SD=0.893$,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감정이입과 조절하기는 비정규직이 $M=3.808$, $SD=0.605$, 정규직이 $M=3.558$, $SD=0.787$, 아르바이트가 $M=3.500$, $SD=0.570$, 미취업이 $M=3.467$, $SD=0.568$,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마지막으로 지도 성은 비정규직이 $M=3.750$, $SD=0.550$, 정규직이 $M=3.509$, $SD=0.877$, 미취업이 $M=3.483$, $SD=0.518$, 아르바이트가 $M=3.333$, $SD=0.817$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어머니의 취업 형태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인 나누기, 도움 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 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4> 취업 형태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N=150)

		M ± SD	F	p
나누기	정규직	3.725±0.812	0.524	.666
	비정규직	3.949±0.826		
	아르바이트	3.944±0.136		
	미취업	3.696±0.692		
도움주기	정규직	3.752±0.893	0.910	.438
	비정규직	4.051±0.665		
	아르바이트	3.444±0.455		
	미취업	3.756±0.617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정규직	3.558±0.787	0.798	.497
	비정규직	3.808±0.605		
	아르바이트	3.500±0.570		
	미취업	3.467±0.568		
지도성	정규직	3.509±0.877	0.558	.643
	비정규직	3.750±0.550		
	아르바이트	3.333±0.817		
	미취업	3.483±0.518		

라. 자녀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차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분석 결과,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하위요인인 나누기는 6세가 $M=3.956$, $SD=0.305$, 7세가 $M=3.908$, $SD=.807$, 5세가 $M=3.763$, $SD=0.779$, 4세가 $M=3.748$, $SD=0.808$, 3세가 $M=3.521$, $SD=0.789$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다음으로 도움 주기는 7세가 $M=4.222$, $SD=0.792$, 5세가 $M=3.789$, $SD=0.761$, 6세가 $M=3.778$, $SD=0.392$, 3세가 $M=3.636$, $SD=0.881$, 4세가 $M=3.606$, $SD=0.810$,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감정이입과 조절하기는 7세가 $M=3.653$, $SD=0.613$, 5세가 $M=3.591$, $SD=.707$, 3세가 $M=3.351$, $SD=0.851$, 6세가 $M=3.483$, $SD=0.427$, 4세가 $M=3.477$, $SD=0.722$,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마지막으로 지도 성은 7세가 $M=3.764$, $SD=0.650$, 5세가 $M=3.582$, $SD=0.712$, 3세가 $M=3.453$, $SD=0.841$, 4세가 $M=3.417$, $SD=0.854$, 6세가 $M=3.333$, $SD=0.564$, 순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자녀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인 나누기, 도움 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 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5> 자녀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N=150)

		M ± SD	F	p
나누기	3세	3.521±0.789	1.199	.314
	4세	3.748±0.808		
	5세	3.763±0.779		
	6세	3.956±0.305		
	7세	3.908±0.807		
도움주기	3세	3.636±0.881	2.141	.079
	4세	3.606±0.810		
	5세	3.789±0.761		
	6세	3.778±0.392		
	7세	4.222±0.792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3세	3.531±0.851	0.262	.902
	4세	3.477±0.722		
	5세	3.591±0.707		
	6세	3.483±0.427		
	7세	3.653±0.613		
지도성	3세	3.453±0.841	1.000	.410
	4세	3.417±0.854		
	5세	3.582±0.712		
	6세	3.333±0.564		
	7세	3.764±0.650		

마. 자녀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차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분석 결과,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하위요인인 나누기는 여자가 M=3.771, SD= .762, 남자가 M=3.646, SD= .7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도움 주기는 여자가 M=3.788, SD= .783, 남자가 M=3.688, SD= .816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감정이입과 조절하기는 여자가 M=3.589, SD= .727, 남자가 M=3.406, SD=. 608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마지막으로 지도 성은 남자가 M=3.523, SD= .636, 여자가 M=3.513, SD=.787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n/a).

< 표 IV-6> 자녀 성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N=150)

	성별	N	M ± SD	t	p
나누기	남자	32	3.646 ± 0.762	-0.825	.410
	여자	118	3.771 ± 0.762		
도움주기	남자	32	3.688 ± 0.816	-0.639	.524
	여자	118	3.788 ± 0.783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남자	32	3.406 ± 0.608	-1.303	.195
	여자	118	3.589 ± 0.727		
지도성	남자	32	3.523 ± 0.636	.071	.943
	여자	118	3.513 ± 0.787		

자녀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인 나누기, 도움 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 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관관계 분석

어머니의 인성 특성, 양육 태도, 자녀의 친 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 간의 관계는 $r = .171(p < .05)$ 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친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낮은 상관으로 나타났다($r = -.044, n/a$). 분석 결과 같은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r = .9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문수백, 2009).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7>과 같다

다음으로 변인별 하위요인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인성 특성의 하위요인인 외향성과 신경증성이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과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외향성과 양육 태도를 먼저 살펴보았다. 외향성-자율적 태도($r = .345, p < .001$), 외향성-애정적 태도($r = .253, p < .01$), 외향성-통제적 태도($r = .224, p < .01$)의 순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성 특성의 하위요인인 신경증성이 양육 태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신경증성-거부적 태도($r = .495,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반면, 신경증성-자율적 태도($r = -.368, p < .001$), 신경증성-애정적 태도($r = -.282, p <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은 어머니의 인성 특성의 각 하위요인과 친 사회적 행동의 각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인성 특성 중에서 외향성과 양육 태도의 각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외향성-감정이입과 조절하기($r = .356, p < .001$), 외향성-지도 성($r = .265, p < .01$), 외향성-도움 주기($r = .235, p < .01$), 외향성-나누기($r = .231, p < .01$)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인성 특성 중 신경증성과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경증성-감정이입과 조절하기($r = -.284, p < .001$), 신경증성-나누기($r = -.274, p < .01$), 신경증성-지도 성($r = -.207, p < .05$), 신경증성-도움 주기($r = -.190, p < .05$)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 애정적 태도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애정적 태도-도움 주기($r = .449, p < .001$), 애정적 태도-감정이입과 조절하기($r = .410, p < .001$), 애정적 태도-지도 성($r = .400, p < .001$), 애정적 태도-나누기($r = .395, p < .00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거부적 태도와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거부적 태도-나누기($r = -.372, p < .001$), 거부적 태도-감정이입과 조절하기($r = -.367, p < .001$), 거부적 태도-도움 주기($r = -.279, p < .01$), 거부적 태도-지도 성($r = -.255, p < .01$)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다. 자율적 태도와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자율적 태도-도움 주기($r = .561, p < .001$), 자율적 태도-지도 성($r = .559, p < .01$), 자율적 태도-감정이입과 조절하기($r = .511, p < .001$), 자율적 태도-나누기($r = .501, p < .001$)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표 IV-7 > 변인 간 상관관계

	인성			양육태도					친사회적 행동				
	① 외향성	② 신경증성	③ 인성 전체	④ 애정적 태도	⑤ 거부적 태도	⑥ 자율적 태도	⑦ 통제적 태도	⑧ 양육태도 전체	⑨ 나누기	⑩ 도움 주기	⑪ 감정이입 과 조절하기	⑫ 지도성	⑬ 친사회적 행동 전체
①	1												
②	-.353***	1											
③	.369***	.740***	1										
④	.253**	-.282***	-.097	1									
⑤	-.157	.495***	.379***	-.464***	1								
⑥	.345***	-.368***	-.117	.707***	-.447***	1							
⑦	.224**	.052	.213**	.169*	.324***	.078	1						
⑧	.300***	-.046	.171*	.675***	.185*	.619***	.699***	1					
⑨	.231**	-.274**	-.106	.395***	-.372***	.501***	-.039	.228**	1				
⑩	.235**	-.190*	-.020	.449***	-.279**	.561***	.045	.364***	.714***	1			
⑪	.356***	-.284***	-.026	.410***	-.367***	.511***	.033	.273**	.677***	.712***	1		
⑫	.265**	-.207*	-.014	.400***	-.255**	.559**	.126	.384**	.623**	.759**	.789**	1	
⑬	.310***	-.269**	-.044	.466***	-.356***	.601***	.053	.357***	.834***	.891***	.906***	.909***	1

*p<.05, **p<.01, ***p<.001

4.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인성 특성의 하위요인인 외향성과 신경증성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인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 그리고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의 각 하위요인인 나누기, 도움 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가.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나누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공차 한계와 VIF 분산 팽창 요인)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독립 변수 간 VIF 지수는 1.140부터 2.479 사이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검증 기준이 되는 10보다 미만이였다. 공차 한계는 0.403부터 0.878 사이의 범에 있어, 검증 기준이 되는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771로 검증 기준이 2에 근접하여 부적(-) 혹은 양적(+)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인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나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28.4%로 예측되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346, P<.001$). 회귀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자녀의 성별($\beta=.319, p<.05$) 및 연령($\beta=.117, p<.05$),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는 자율적 태도($\beta=.591, p<.01$)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자녀의 성별이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율적 태도로 양육할 때,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 특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성별, 연령,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나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8>에 제시하였다.

< 표 IV-8>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나누기에 미치는 영향

(N=150)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베타	t	p	공선성 통계량	
		β	Std. Error				공차	VIF
(상수)		2.056	.893		2.302*	.023		
연령		-.093	.100	-.070	-.928	.355	.843	1.186
인구학적 변인	최종학력	-.171	.104	-.125	-1.648	.102	.835	1.198
	취업형태	-.060	.044	-.107	-1.354	.178	.776	1.289
자녀성별		.319	.136	.174	2.347*	.020	.878	1.140
자녀연령		.117	.047	.194	2.510*	.013	.807	1.239
어머니 인성	외향성	.071	.100	.059	.712	.478	.693	1.444
	신경증성	-.065	.094	-.060	-.689	.492	.635	1.575
양육태도	애정적태도	.117	.149	.086	.787	.433	.403	2.479
	거부적태도	-.184	.148	-.124	-1.246	.215	.491	2.036
	자율적태도	.591	.175	.353	3.386**	.001	.444	2.253
	통제적태도	-.125	.146	-.074	-.861	.391	.657	1.523

$R^2=.338$, Adjusted $R^2=.284$, $F=6.346$, $p=.000$, Durbin-Watson=1.771

* $p<.05$, ** $p<.01$

나.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도움 주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 중에 도움 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64로 자기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인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 도움 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32.6%이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515$, $P<.001$). 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자녀의 성별($\beta=.332$, $p<.05$) 및 연령($\beta=.126$, $p<.01$),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는 자율적 태도($\beta=.785$, $p<.001$)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도움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성별이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는 자율적 태도로 양육할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 도움 주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성별, 연령,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나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욱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9>에 제시하였다.

< 표 IV-9>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도움 주기에 미치는 영향

(N=150)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베타	t	p	공선성 통계량	
		β	Std. Error				공차	VIF
	(상수)	.039	.898		.044	.965		
	연령	-.087	.100	-.063	-.863	.390	.843	1.186
인구학적 변인	최종학력	-.110	.104	-.078	-1.056	.293	.835	1.198
	취업형태	-.061	.044	-.106	-1.381	.170	.776	1.289
	자녀성별	.332	.137	.175	2.428*	.016	.878	1.140
	자녀연령	.126	.047	.201	2.672**	.008	.807	1.239
어머니 인성	외향성	.054	.101	.043	.532	.596	.693	1.444
	신경증성	.022	.094	.020	.234	.815	.635	1.575
양육태도	애정적태도	.211	.150	.149	1.404	.163	.403	2.479
	거부적태도	-.007	.149	-.005	-.047	.962	.491	2.036
	자율적태도	.785	.175	.453	4.475***	.000	.444	2.253
	통제적태도	-.078	.146	-.045	-.534	.594	.657	1.523

$R^2=.376$, Adjusted $R^2=.326$, $F=7.515$, $p=.000$, Durbin-Watson=1.864

* $p<.05$, ** $p<.01$, *** $p<.001$

다.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1.942로 검증 기준인 2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인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도움 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산 설명력은 29.7%로 예측되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678, P<.001$). 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자녀의 성별($\beta=.298, p<.05$), 어머니의 인성 특성 중에서는 외향성($\beta=.199, p<.05$),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는 자율적 태도($\beta=.513, p<.01$)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성별이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그리고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외향적일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자율적일 때,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인성 특성 중 외향성,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 자율성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10>에 제시하였다.

< 표 IV-10>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에 미치는 영향
(N=150)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베타	t	p	공선성 통계량	
		β	Std. Error				공차	VIF
	(상수)	1.053	.824		1.278	.203		
	연령	.019	.092	.015	.202	.840	.843	1.186
인구학적 변인	최종학력	-.097	.095	-.077	-1.014	.312	.835	1.198
	취업형태	-.039	.041	-.075	-.960	.339	.776	1.289
	자녀성별	.298	.125	.175	2.378*	.019	.878	1.140
	자녀연령	.027	.043	.048	.631	.529	.807	1.239
어머니 인성	외향성	.199	.093	.178	2.146*	.034	.693	1.444
	신경증성	-.025	.087	-.025	-.290	.772	.635	1.575
양육태도	애정적태도	.109	.138	.086	.792	.429	.403	2.479
	거부적태도	-.201	.137	-.145	-1.469	.144	.491	2.036
	자율적태도	.513	.161	.329	3.183**	.002	.444	2.253
	통제적태도	-.013	.134	-.008	-.096	.924	.657	1.523

$R^2=.349$, Adjusted $R^2=.297$, $F=6.678$, $p=.000$, Durbin-Watson=1.942

* $p<.05$, ** $p<.01$

라.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지도 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지도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독립 변수 간 VIF 지수는 1.140부터 2.479 사이의 범위에 있고, 공차 한계는 0.403부터 0.878 사이의 범에 있어, 검증 기준이 되는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06으로 검증 기준인 2에 근접하여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277로 나타나 본 회귀모델은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약 29.7%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6.148$,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 자율적 태도($\beta = .872$, $p<.001$)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지도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 자율적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중 지도 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본 회귀모형을 통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지도 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 자율적 태도가 유일하며, 이 영향력의 크기는 매우 큰 수준의 예측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V-11>에 제시하였다.

< 표 IV-11>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지도 성에 미치는 영향

(N=150)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베타	t	p	공선성 통계량	
		β	Std. Error				공차	VIF
	(상수)	.079	.889		.089	.929		
인구학적 변인	연령	-.048	.099	-.037	-.479	.632	.843	1.186
	최종학력	-.091	.103	-.067	-.880	.380	.835	1.198
	취업형태	-.035	.044	-.063	-.795	.428	.776	1.289
	자녀성별	.139	.135	.077	1.025	.307	.878	1.140
	자녀연령	.022	.047	.036	.465	.643	.807	1.239
어머니 인성	외향성	.070	.100	.059	.697	.487	.693	1.444
	신경증성	.023	.094	.021	.244	.807	.635	1.575
양육태도	애정적태도	.002	.149	.002	.015	.988	.403	2.479
	거부적태도	-.065	.147	-.044	-.440	.661	.491	2.036
	자율적태도	.872	.174	.527	5.020***	.000	.444	2.253
	통제적태도	.142	.145	.084	.977	.330	.657	1.523

$R^2=.330$, 수정된 $R^2=.277$, $F=6.148$, $p=.000$, Durbin-Watson=2.006

*** $p<.0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자녀로 둔 부산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인성 특성의 하위요인인 외향성과 신경증성,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인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그리고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인 나누기, 도움 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지도 성을 측정하고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아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 자율적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보다는 여아가,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머니는 자율적 태도로 양육할 때,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 특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나누기는 내재화된 친 사회 가치의 중요한 지표이며(e.g, Knafo & Plomin, 2006). 어머니 온정과 민감성과 같은 긍정 양육 행동은 아동의 나누기를 포함한 친 사회적 행동과 연관적이며(e.g, Kiang, Moreno, & Robinson, 2004; Knafo & Plomin, 2006). 좋은 행동은 관찰자가 보상해줄 수 있다는 기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열망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Van Rompay et al, 2009).

둘째,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도움 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아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는 자율적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도움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이 남아보다는 여아일 때,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율적 태도로 양육할 때,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 도움 주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ng & Barnett(1982)의 상황을 보여주고 아동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한 결과 연령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도와주기 행동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신현옥, 1995, 재인용).

셋째,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인성 특성 중에서는 외향성,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는 자율적 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 감정이입과 조절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이 높고, 신경증이 낮을수록 유아는 정서를 잘 통제한다는 연구(문혁준, 2010; 박혜성, 2010; 황영미, 2009)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지도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에서 자율적 태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 지도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회귀분석을 통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중에서 지도 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 자율적 태도가 유일하며, 이 영향력은 매우 큰 수준의 예측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력은 사회적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되는 개념으로, 지도력이 높은 아동은 성숙한 도덕 추론을 하며(Berkowitz, 1972), 또래에 의해 잘 도와주는 친구라고 판단된다(Carlson, 1984)고 하였다. 정희원·김경연(1998)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하여 유아들 개인적 변인의 영향에서 보면 지도력이 높은 아동들이 친 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은 원활한 또래 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또래 및 성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미래 민주 사회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반면 친 사회적 행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면, 유아는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또래 사회로부터 고립당하거나 정서적 곤란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성 특성의 영향력과 관련

하여서, 어머니들의 신경증성이 높을수록 유아들은 평소에 불안정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냈고, 어머니들의 외향성이 높으며, 신경증성이 낮을수록 유아들은 정서를 잘 통제했다. 이런 결과는 신경증성이 높은 어머니들의 아이들은 화를 자주 내며, 부정적인 기분을 나타내고(Brook et al. 2002), 외향성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높으며(오희옥 외, 2007; Rickman & Davidson, 1994), 친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문혁준, 2010; 황영미, 2009)과 일치한다. 또한, 신경증적인 어머니의 자녀는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김연, 2007; Brook et al. 2002; Rubin, Burgess, & Dwyer, 2003)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어머니들의 외향성과 신경증성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초점을 두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적응의 토대가 되는 친 사회적 행동 발달을 위해 본 연구는 유아에게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생애 최초 애착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에 따라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수행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성 특성의 영향을 파악하여,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유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들의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어머니들의 긍정적 정서 표현은 유아의 긍정적인 친 사회적 행동에, 어머니들의 부정적 정서 표현은 유아들의 부정적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되어서 어머니들의 긍정적 정서 표현을 돕는데 유의미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들의 정서 표현은 인성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기인해서, 어머니들의 신경증성과 같은 부정적 인성 특성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인성 발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의 영향을 파악하여,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형성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한다. 어머니는 유아의 사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Lamb, 1981),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통해 유아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어머니들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에 따라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어머니의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양육 태도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아동 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부모 인성교육을 통해 양육방식을 개선하고, 아동 학대와 같은 문제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인성교육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머니의 인성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자녀 양육 프로그램의 관련 연구가 미흡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현재 보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회적인 자녀 양육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어머니 인성교육과 양육방식을 위한 전문 강사 교육과 양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유아가 자율적이고 애정적 양육 태도를 갖춘 인성이 올바른 양육자에게 양육되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전국의 지역을 포함해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미술학원 등을 통해 섭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적 구조상 유아교육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과정이 다르고,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환경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는 기관을 통일한다면 좀 더 세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와 해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하는 다양한 양육환경과 가족구조를 반영하여 어머니뿐만 아니라 유아의 아버지, 혹은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 등 기타 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양육자의 인성과 양육 태도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 연구는 설문지는 물론 인터뷰나 관찰 등 질적연구 방법과 병행한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인식을 통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인식을 통해 측정하는 방식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교사의 평가를 함께 반영하거나, 혹은 연구자가 유아를 관찰한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을 면밀하게 측정한다면, 더욱 명확하고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국형윤(2012). 부모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애자(1988).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인숙(1998). 부모의 특성 불안과 양육 태도 및 아동의 문제 행동.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영임(201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보육 (2), 85-96.
- 권유경(2010). 주 양육자의 취업 형태에 따른 부모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경진(2014).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수, 박승순, 권소영(2003). 유아의 정서 지능과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열린 유아교육 연구, 8(1), 253-270.
- 김나희, 박보경, 도현심(2012).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 한국 가정 관리학회지, 30(3), 151-163.
- 김녹현·정영주·차선희(2014).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 행정 논총, 24(2), 89~121.
- 김금선(2011). 부모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주지역 어린이집 이용 유아를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 행정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2010). 양육 태도의 세대 간 전이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2007). 유아 정서 능력과 어머니 정서 반응 태도에 기초한 또래 유능성 모형,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왕규(2003).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효 교육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 7차 초등 도덕 교과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진(2010). 정서 행동 장애 아동의 사회성과 부모 양육 태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미(2015). 부와 모 간의 양육 태도 · 훈육방식 · 유아 문제 행동 인식 차이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덕(199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 태도와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옥, 김영희(2002).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특성이 유아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5, 123-140
- 강성일(2008).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영숙(1990).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2007). 아버지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리더쉽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은(1974). 한국 가족의 집단 성격과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점희·조현철(2018), 유아 인성 검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대한 사고개발학회, 14(2), 69-100.
- 김정남(1997).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일치 정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한중(1995).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과 역사교육 연구', p23, 김한중, 1995,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효녀(2005).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형옥, 안선희(2001).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9), 15-25.
- 정희원, 김경연(1998). 가정 환경적 변인 및 아동 개인적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 성과 연령에 따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1)
- 노경아(2016).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영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미순(2006).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리더쉽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궁달화(2001). 도덕교육의 개념과 과제. 한국 도덕 교육학 연구회, 2, 27-40
- 남궁달화(1999). 인성 교육론. 서울: 문음사
-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인지 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상문(1997).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현심. (1999).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부모교육. 부모 자녀 건강학회지, 20, pp.1-15.
- 마송희(1991). 유아의 사회적 애용 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문채덕(2010). 어머니 양육 태도와 유아 리더쉽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혁준(2010).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어머니 변인 연구. 한국 보육 지원 학회지, 6(1), 251-267.

모용희(2015).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이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 도덕적 판단력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광윤(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경자(1999).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대한 가정 학회지, 37 (1). 79-89.

박미옥(1994).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수현(2005).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2000). 어머니의 가치관 및 양육 태도와 아동의 행동 억제 간의 관계.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18 (1) : 85~ 95

박영애(2002).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따른 아동의 대인 간 문제 해결 행동.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박용현(1984). 사회적 행동과 학습. 교육 과학 신서 3. 서울: 교육출판사.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 행동과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학회지, 30(3), 85-98.

박진성, 박은희(2010). 유아·가족 배경 변인과 가족 탄력성이 유아의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 논집, 14(1), 203-225.

- 박찬수(1985).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 행동 및 남아의 정서 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 박화윤, 안라리(2006). 만 3, 4, 5세 유아의 연령 별 사회적 능력과 정서 조절 전략의 관계. 유아교육 연구, 26(4), 351-369.
- 박혜성(2011).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정서 표현과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혜경(1999).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유치원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반현주(1985). 어머니의 성격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연실(1999). 가정환경 자극 및 유아의 기질과 사회 적응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 손금순(2002).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명숙(2003).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정서 지능 간의 관계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2002), 어머니 양육 행동 및 아동의 대인 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숙란(2007).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은교·정정희·정효진(2018) 어린이 문학 교육 연구, 19(4), 353-372. (어머니의 인성 특성, 양육 행동,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 손소영(2004).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기질 특성

- 과 부모 양육 태도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 송은교(2012). 어머니의 인성 특성, 양육 행동,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경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숙, 권희경(2003).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 연구, 8(3), 207-225.
- 서수진(2011). 가적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인터넷 양육 태도가 유아의 인터넷 활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 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남희(2008). 부와 모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세연(1993).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수경(2005).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 변인 간의 구조 분석. 열린 유아교육 연구, 10(2), 193-211.
- 우정희, 이미숙, 전춘애(2003). 아버지의 결혼 만족도 및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2), 91-101.
- 우희정(1990). 취학전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tv 및 언어적 훈련의 효과
- 유종남 (2014). 어머니 양육 태도가 유아의 기질,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 능력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화연(2013). 어머니의 인성 특성이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모자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유효순·이정옥(2001). 유아 사회교육, 서울 : 교문사

- 이점숙(1984).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경향과 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동희(2003). 유아의 기질, 부모 간 갈등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소은(2007).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유아의 문제 행동과 주의 집중력. 아동학회지, 28(2), 71-89.
- 이선희(2000).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따른 유아의 대인 문제 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윤경(2003). 취업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희(2011). 유아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 또래 유능성,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도희(2012). 어머니의 양육 태도, 자기 조절력, 대인 문제 해결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진아(2010).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또래 애착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복·신유림(2010). 어머니 거부/방임적 양육 태도, 유아의 기질 및 보육 경험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자기조절의 중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가정관리 학회, 28(3), 73-80.
- 이병욱(2005). 대상관계란 무엇인가 What is Object Relations 정신분석 2005년 16권 2호 p.194~201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채정현·유태명·왕석순·이은희·김하늬·최민지(2013). 한국 가정과 교

- 육학회, 2013(1), 100-101.
- 이원영(1983). 아동의 사회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방법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1(3), 329-344.
-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1993). 발행기관 : 한국 유아 교육학회 간행물 : 유아교육 연구 13권 0호 pp. 65-91 (27 pages)
- 이종승(1981). 학업성취에 관련된 변인의 한인과 분석, 한국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19. (3), 109-120.
- 이혜성(1994).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화령, 임낭연, 류초롱, 서은국, 박수진(2008). 외향적 기질과 행동이 유발하는 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59-175
- 우종옥(2001). 21세기 교육의 큰 두 개의 축 : 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 서울 : 교육 과학사.
- 오희옥, 오선영, 김영희(2007).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훈육방식 및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대한가정학회지, 45(2), 1-22.
- 이지희, 문혁준(2008). 아동의 정서 성, 정서 조절 능력 및 어머니 양육 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4), 1-14.
- 이정순(2002). 부모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찬숙, 현은자(2008) 정서 조절 프로그램
- 이화용(2012). 영아의 놀이성과 기질 및 사회 정서 발달의 관계. 덕성여자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1985). 성격 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5(1), 51-66.
- 이혜원(2011). 친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유아의 성, 연령, 기질과 어머니의 학력 및 취업 유무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자, 선우현(2015). 반응성 애착 장애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연구
한국 기독교 상담 학회지 - dbpia.co.kr
- 여은진(2009). 유아와 어머니 정서 성,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행동 및 유아 정서 조절 간의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희원, 김경연(1998). 가정 환경적 변인 및 아동 개인적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 성과 연령에 따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1).
- 조복희, 광혜경, 김혜순, 연미희, 이영환, 장혜자(2014). 유아 발달. 경기도: 교육 과학사.
- 조은하(2013).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은꽃(2014). 어머니의 상위정서와 상위 정서화가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경희(2017). 단순 언어 장애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기질, 어머니의 양육 태도 특성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영선(2004).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 이영자(2009). 취학 전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행동 및 양육 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 생활 과학회지, 18(3), 619-629
- 장영숙(2009).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간의 관계 한국 열린 유아교육학회 Vol. 14 No. 3 207-225(19)
- 전우경·강정원(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대한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의 차이 비교 연구, 한국 교육 문제연구, 25(2), 61~84.
- 전현진(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 만족도가 양육 행동에

-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1987). 부모 양육 태도 검사의 개발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 연구. 7.41-60.
- 정옥분(2002). 아동 발달의 이해, 학지사
- 주정현(2004).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윤희 (2004) . 어머니의 정서 표현에 관련된 변인과 유아의 정서 능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일(1999). 인성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백록 논총, 1, 45-94.
- 최미경(1998).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에 따른 조사지침 및 노출 지침이 조사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향(2002),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 간 양육 태도 일치 정도에 따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민수(2011).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영유아 인성교육 방안 모색, 유아교육 교육복지연구, 15(4), 141-168.
- 최현진(2016).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경험과 관련 요인.
- 천세영 외(2012). p34 (인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인성 덕목을 활용한 융합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2014 단국대학교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 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동옥(2009).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조화 적합성과 유아의 정서 지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은주(1988). 부모의 성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송자(1990).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 태도 및 유아의 인지 형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인자(1988).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혜련·송현주(2013). 아동기 실행기능과 부모 양육 태도, 재활심리연구,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 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황영미(2009). 유아의 또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및 어머니의 변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ram Kardiner(1939). The individual and his society : the psychodynamics of primitive social organization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 of Vermont.
- Albert Bandura(1977).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 Baumrind, D.(1966).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4, 335-369.
- Baumrind(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New Jersey: Erlbaum.
- Baumrind, D, Larzelere, R. E, & Owens, E. B. (2010). Effects of preschool parents' power assertive patterns and practi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0(3), 157-201.
- Bar-Tal, D. (1976).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Wiley & Sons, Inc.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 Child Development, 57, 83-96.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 (Eds), Parenting
- Belsky, J. Crinic, K, & Woodme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n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Journal of Personality, 63, 905-929.
- Becker. W. C.(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I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M.L. Hoffman and L.W.
- Benn, R, Factors associated with security of attachment in dualcareer famili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1985.
- Berkowitz(1976). 도덕의 작용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추론.
- Costa, P. T, & McCrae, R. R. (1980a).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 Costa, P. T, & McCrae, R. R. (1992). Comparability of Alternative measures of the five-factor model in Peer Rating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SanDiego
- Clark, L. A, Kochanska, G, & Ready, R. (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al Psychology, 79(2), 274-285
- Eysenck, H. (1967).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IL: Chales C. Thomas.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4), 387-411.

- Doescher, Sugawara(1989). *Childhood Education*, v65 n4 p213-16
- Fleeson, W, Malanos, A. B, & Achille, N. M. (2002). An intra individual process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version and positive affect : Is acting extraverted as “good” as being extraver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409-1422.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 and feelings, *Child Development*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S DOh, T. Falbo,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Social competence, Imaternal a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in Korea, Inierndional Joind of Bahanioral Developyleh, 23 (I), 149-162
- Heinicke(1983). Heinicke, D, Diskin, S, Ramsey-Klee D & Given, K.(1983). “Prebirth Parent Characteristics and Family Development in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54, pp. 194-208.
- Hughes, E. K, & Gullone, E. (2010). Parent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ersonality and emotion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7), 694-699.
- Larsen, R. J, & Ketelaar, T. (1991). Personality and susceptibility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32-140.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Maccoby, E. & Martin, J.(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 - 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Socialization, Personality,

- and Social Development, 4, 1 - 101. NY: John Wiley
- McGinnis E, Goldstein AP(1990) Skillstreaming in Early Childhood. Research Press. O'Malley JM(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Palmer Quartely 23(1), 29-44.
- Piaget와 Vygotsky의 인지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디자인 문화 학회 183)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42663 (2012). 인지 발달적 상호작용이 유아 디자인교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3), 215-227.)
- Richters & Pelligrini (1989). Mothers' Judgment in Moments of Anger.
- Saarni, C. (2000). Emotional Compet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Social and Psychology, 59, 226-235.
-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tockdale, D. F, Hegland, S. M, & Chiaromonte, T.(1989). Helping behaviors: An observational study of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4)
- Symonds, P. (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 Walsh. H. M.(1980). Introducing the young child to the social world. New York : Macmillan Pub. Co, Inc.

<부록 1> 설문지

어머니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영·유아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어머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설문은 어머니
의 인성 특성과 양육 태도가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으므로 문항을 읽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바
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
리며 언제나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0 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컨설팅학과

지도교수 원 효 현

연구자 김 소 연

문의: krlathdus@naver.com

본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

동의

미동의

I. 일반적 사항

1. 어머니의 연령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이상

2. 어머니의 최종 학력

- ① 중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3. 어머니의 취업 형태

- ① 정규직 형태의 취업 ② 비정규직 형태의 취업
③ 아르바이트 ④ 취업하지 않음

4. 자녀의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5. 자녀의 연령

- ① 3세 ② 4세 ③ 5세 ④ 6세 ⑤ 7세

II. 어머니의 인성 특성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2	나는 활기가 넘친다.					
3	나는 평소에 즐거운 모임에 가면 잘 즐길 수 있다.					
4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5	나는 사교 장소에서도 주로 앞자리에만 앉아 있다.					
6	나는 친구가 많다					
7	나는 친구를 새로 사귄 때 보통 주도권을 갖는다					
8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말이 많은 편이다					
9	나는 지루한 모임에서 쉽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10	나는 친구에게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한다					
11	나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12	활동적인 행동이 요하는 일을 하기 좋아한다.					
13	나는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14	나는 별 이유 없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15	나는 때때로 해서는 안될 일이나 말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괴로워한다.					
16	나는 감정이 쉽게 상한다.					
17	나는 가끔 사는게 지겹다는 생각이 든다.					
18	나는 나 자신이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한다.					
19	나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20	나는 앞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걱정한다					
21	나는 매우 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아무 이유없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23	나는 가끔 인생이 따분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					
24	나는 난처한 일을 당하고 나면 오랫동안 고민 한다.					
25	나는 나 스스로 신경과민이라 생각한다					
26	나는 가끔 외롭다고 느낀다.					

27	내가 한 일을 남이 비판하면 곧 속이 상한다.					
28	나는 의욕이 넘치다가도 갑자기 의기소침해지곤 한다					
29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군다					

Ⅲ. 어머니의 양육 태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 주는 편이다					
2	아이는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고 이해도 빠른 편이다					
3	아이가 속 썩이는 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의 행동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야단을 치거나 비난을 하는 편이다					
4	아이가 잘못을 했을 경우, 나는 일부러 쌀쌀하게 대하고 따끔하게 타이르는 편이다.					
5	아이에게 문제되는 행동이 보일 때 거리낌 없이 누군가에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는 편이다					
6	내 아이의 그릇된 행동을 고집어 내지 않는다					
7	아이의 흥미나 관심거리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도움을 주는 편이다.					
8	아이들이 사귀는 친구 및 자녀들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나쁜 일이나 나쁜 친구에게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9	아이가 마음대로 하도록 두면 버릇 들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나 행동을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	아이가 놀거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가능한 집안에서 하도록 하는 편이다					
11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비록 힘든 일일지라도 혼자서 해보도록 한다.					
12	아이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유를 줄 용의가 있다.					
13	아이를 일일이 돌봐 주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리를 찾아 놀게끔 하는 편이다.					

14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기가 다소 어렵고 나에게 까다로운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다.					
15	아이가 다른 아이나 어른과 잘 사귀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16	직장이나 가정 일을 하다가 권태롭다거나 지겹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17	아이가 클 때까지 누군가가 대신 좀 키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 때가 있다.					
18	아이가 가능한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도록 격려하여 보다 성공하도록 격려해 준 적이 있다					
19	아이를 양육하려면 부모에게 많은 근심 걱정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	아이가 되도록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편이다.					
21	아이의 어린이집/유치원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편이다.					
22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규칙과 규율을 많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슬하에 자식을 둔 것이 매우 기쁘다고 자녀에게 말해준다.					
24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5	내 아이에게 애정표현을 겉으로 잘 표현한다					
26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27	아이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녀와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28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 가지고 있다.					
29	자녀 양육이 즐거울 때보다 부담스러울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30	아이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해 고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1	아이가 속 썩이는 행동을 할 때, 어머니께서는 참으려다가 와락 화를 내거나 자주 큰 소리를 지른다.				
32	아이로 인해 속상하기도 하고 화낼 일도 많은 편이다.				
33	나는 자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34	자녀의 요구를 대체로 무시하는 편이다.				
35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매우 즐거워하는 편이다.				
36	자녀들의 행동이 자랑스럽고 칭찬도 하는 편이다.				
37	어린 자녀들이 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노는 방식대로 허물없이 함께 놀아주는 편이다.				
38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나 성격이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9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독서, 강연회 등에 참석한다				
40	나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 그리고 여러 방면에 대해 폭넓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41	자녀가 집이나 부모(어머니)를 떠나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이해하는 편이다				
42	자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대체로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43	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녀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할 때, 내버려 두는 편이다				
44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 무엇이든 내(어머니)가 알아야 제대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5	자녀들에게 "장손/만딸" 혹은 집안의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6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면서 부모를 어렵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47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벌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은 경험이 있다.				
48	자식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난감 등 소유물을 잘 나누어 가지고 논다.					
2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놀이 공간을 친구와 잘 공유한다.					
3	자신의 놀이기회를 친구에게 잘 양보한다.					
4	친구가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 의견, 행동 등의 도움을 잘 준다.					
5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려운 친구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돕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6	친구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도와주려는 의지를 갖고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예 "내가 도와줄까?")을 주도적으로 잘한다.					
7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또래의 감정/정서에 말, 행동, 표정 등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다.					
8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의 감정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절한 방법(말, 표정, 태도)을 잘 쓸 수 있다.					
9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하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					
10	어려운 문제해결 상황에서 금방 울거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					
11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자주 리더 역할을 한다.					
12	또래 친구에게 먼저 놀이를 하자고 자주 제안한다.					
13	힘든 문제해결 상황에서 다른 사람(교사나 또래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14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